

성도의 빛 11

1974



순서

- | | | |
|----|--------------------------|-------------|
| 1 |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 스펜서 더블류 김볼 |
| 4 | 물론일지 | |
| 7 | 1974년 지역대회 | |
| 12 | 집사의 임무 | 본 제이 퍼더스톤 |
| 14 | 교사의 임무 | 에이치 버크 피터슨 |
| 16 | 제사의 임무 | 빅타 엘 브라운 |
| 18 | 소녀 여러분은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 아데스 지 캡 |
| 20 | 수수께끼
가족나무를 올라가 보세요 | 엘리자베스 엘 니콜스 |
| 21 | 첫발을 크게 내딛다 | 매리 조이스 캡 |
| 24 |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 |
| 26 | 두 곳의 소금바다 | 낸시 엠 암스트롱 |
| 28 | 숨은 그림 찾기 | |
| 29 | 질 의 응답 | |
| 30 | 하나님이 예임하신
예언자의 백성들 | 브르스 알 맥콩키 |
| 34 |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마크 이 피터슨 |
| 38 | 공의와 자비 | 제임스 에이 칼리모어 |
| 41 |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 고든 비 힝클리 |
| 45 | 부름에 대한 대답 | 닐 에이 맥스웰 |
| 46 | 선교부장단 메시지 | |
| 47 | 내외소식 |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롱니

십이사도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4년 11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12호

발행인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인: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 수

정가

1권 15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불

필리핀, 월남, 라오스, 태국,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아시아 18불

선박 3불

행

월간

성도의 벗

제10권 제11호 1974년 11월호

1974년 4월 4일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행하신 말씀에서 발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마가복음 16 : 15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이웃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교성 18 : 15)

개종자가 하나도 없다면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벌이고 있는 선교 사업의 가장 큰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경전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명령과 약속, 부름과 보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명령”이라는 말을 쓴 까닭은 우리가 개인이나 집합체로서 모두 이러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잠잠산에 열 두 제자를 데려 가지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 : 8) 이 말씀은 그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땅 끝까지”라고 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은 사도가 알고 있는 땅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셨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근동 지방을 뜻한 것일까요? “땅 끝까지”란 어디를 두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미대륙을 두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도와 이탈리아나 중부 유럽을 지적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백성과 앞으로 올 수많은 영을 두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취지를 과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40억의 세계 인구 중 10만명이 개종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열 한 명의 제자가 갈릴리의 산에 모였을 때 구세주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

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 28 : 18-20)

1830년 주님께서는 팔리 피 프랫, 올리버 카우드리, 피터 휘트머, 지바 피터슨을 레이먼인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몸소 저들과 함께 가며 그 가운데 있으려니와 나는 아버지께 향한 저들의 변호인이니, 저들을 이길 자는 결단코 없으리라.”(교성 32 : 3) 그렇다면 그분은 지상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신 게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고 하신 말씀을 그 당시까지 세상에 있었던 모든 나라를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보고 모두 가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이 일이 성취될까 하고 의문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권세를 지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18 : 20)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부활하신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 이것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이 애굽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그리스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서기 33년의 세계만을 그가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970, 1980, 1990년대의 세계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천하”라는 말씀에는 무엇이 다 포함되며 “만민”이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눅 24 : 47) 확실히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 두루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의 성구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모세가 본 세상은 참으로 큰 세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보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끝과 지음을 받고 있고 또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의 자녀가 있어...”(모세서 1 : 8) 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지상에 정착하게 될 주민의 땅의 범위를 아셨고 이 세상을 차지할 백성이 누구인지도 이미 아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위엄에 찬 말씀과 영광으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눈을 돌려 세상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매, 보지 못한 것이 세상의 티끌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으로써 이를 분별하였더라.

“...저들의 수는 많았으니 바닷가의 모래같이 무수하더라. “또 저는 많은 땅을 보았나니, 그 하나 하나를 육지라

하였고 그 지면에는 주민이 있더라.”(교리와 성약 1:27-29)

선지자 예녹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들을 보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서 6:36)이 예언자들은 많은 영과 모든 창조물을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땅”, “땅 끝까지”, “모든 방언의 백성”, “모든 영혼”, “많은 나라” 라고 하셨을 때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말을 쓰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확실히 그의 양은 그가 매일 접촉한 주변의 수천 명에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계 인류가 한 가족이며, 온 우주가 그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잘하고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144년 동안 복음 전도 사업을 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긴 안목을 확대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지휘관입니다. 그가 계획을 짜셨습니다. 그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인용하는 니파이의 다음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이 성구를 읽으면서 나는 아직도 손질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은 장벽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미 노력을 기울여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다. 니파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뜻하는 바는 오직 사람들을 권고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인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며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니일 6:4)

나는 교회사를 읽으면서 초기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간 대담성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길을 발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으며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용감한 형제들이 교회가 완전히 조직되기도 전에 본부 근처에 있는 인디안 땅에 복음을 전파하려 간 사실을 기억합니다. 1837년 초에 십이사도가 영국을 방문했으며, 1844년에는 타히티를, 1851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를, 1853년에 아이슬랜드를, 1850년에 이탈리아를, 같은 해에 스위스, 독일, 통가, 터어키, 멕시코, 일본, 체코슬로바키아, 중국, 사모아 뉴질랜드, 남미, 불란서, 하와이 등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들 여러 나라중 몇몇 나라에서 거둔 발전에 비해 인근 국가에서 전혀 발전을 기할 수 없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초기의 개종 사업은 대부분의 지도자가 록키 산맥을 넘어 유타주로 성도들을 이주시키며,

농사를 짓고, 집을 세우던 때에 행해졌기 때문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도 선교 사업을 한 점으로 보아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현시점으로 보아 꼭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선교 사업 확대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주님께서는 토마스 비 마쉬와 요셉과 시드니 리그돈과 하 이람에게 왕국의 “열쇠를 지닐”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며, “왕국의 문을 여는 중”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성 112:10-17)

또한 용감한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리셨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저들이 나의 말을 받아 들이도록 효과적인 문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성 112:19)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닌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들어 갈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복음 사업의 문을 열도록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정치가나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준비를 갖추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교회에는 17,5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1973년에 선교 지역으로 나간 선교사 수는 8,900명에 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한 존 테일러 대관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어 주기를 간청할 때 나는 열등감에 빠진 선교사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선교사나, 간증이 약한 선교사나 부도덕한 선교사가 되어 주길 청하지는 않습니다. 나는(전세계에 있는 각 와드나 지부에서) 보다 훌륭한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일찍부터 이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큰 영광이며, 따라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여야 한다는 점과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교성 1:31)는 말씀을 옳게 이해해야 하며, 이를 그들의 첫째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선교사가 가정과 교회에서 훌륭히 교육받고 훈련받아 큰 기대를 갖고 선교 사업에 임하게 될길 부탁드립니다. 이들과 이해심과 동정심이 갖는 접점을 보다 훌륭하고 신중히 가지며 이들을 보다 일찍이, 오랜 동안 교육시켜 이들로 하여금 큰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고 선교 사업에 임하게 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1943년 내가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교회 회원이 백만 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 회원의 총수는 3,353,000명입니다. 당시 146개의 스테이크와 40

개의 선교부가 633개의 스테이크와 107개의 선교부로 확장되었습니다. 1943년에 937,000명이 1959년에는 1,116,000명으로, 1973년에는 3,300,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1943년과 1959년의 16년 동안에 약 19퍼센트가 증가되었고, 1959년부터 1974년 사이에 196퍼센트가 증가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이야말로 놀라운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30일 현재로 교회의 17,564명의 선교사 중에서 55퍼센트인 9,560명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등지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약 8,000명의 선교사가 언어 훈련 선교부에서 어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선교사의 45퍼센트 중 17퍼센트인 3,000명이 스페인어를, 1,000명이 독어를, 또 다른 1,000명이 일어를, 400명이 불어를, 600명이 포르투갈어를 배우며 기타 상당수의 선교사가 화란어, 핀란드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태국어, 사모아어, 아프리카어, 나바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 학자가 기원 후 33년경 구세주께서 강력하게 “모든 나라와 혈통과 방언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하셨을 때 지상에는 약 250,000,0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 사실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00년이 지난 후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이 주어졌을 때 통계 학자들은 그리스도가 계실 때의 인구의 약 4배가 되는 1000,000,000명이 지상에 살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대상은 3,500,000,000명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서 내려 주셨습니다. 물론 “예”입니다. 모든 젊은이는 선교 사업을 마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국민에게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며 바다의 여러 섬에 보내라. 외국으로 보내라. 모든 국민에게 찾아 가라. 먼저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이 유대인에게로다.”(교성 133:8) 주님께서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선교 사업에 반드시 임해야 하나 모두가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성년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장애로 선교 사업에 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였거나 선교 사업의 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생활을 하여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다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민을 떠났거나,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젊은이를 합당하게 이끌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능

력있고 합당한 젊은이는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는 항상 선교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저축하고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준비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각 사람은 의를 손에 들고 충실로 허리를 동여 매고 땅의 주민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일지어다. 또 말하거나 도망함으로써 악인에게 황폐가 임할 것을 선포할지어다.”(교성 63:37) 주님께서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각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일년 전에 나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나는 많은 훌륭한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각 조직에서 지도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수많은 지역 지도자들이 준비를 갖추고 있어 큰 발전이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그후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에도 멕시코의 젊은이와 중남미 라틴계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자질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그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물이 깊은 바다를 덮듯이 주님의 선교사가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날이 이르리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방문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를 이끄는 훌륭한 능력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으며, 복음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에서 유능하고 합당한 교회의 젊은이들이 모두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선교사의 수가 증가되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스테이크와 선교부가 자기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배출해 그곳에 나가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선교사의 수를 덜고, 우리가 유능한 지도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선교 지역의 문을 여는 사도를 도울 수 있고, 우리가 통신 위성이나 모든 미디어 즉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이용하게 되고, 발판이 될 다른 수많은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미성입자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미혼자들을 활성화시키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권고를 계속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이기 위해 문을 열어 준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 나라는 승천한 예수의 시온 성과도 같이 교육과 문화가 발전하고 신앙이 강하여지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은 니파이 시절의 평화로왔던 200여년과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 번영이 깃들고, 백성들에게 안락과 평안이 임하며, 복음을 받아 들인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가 찾아 오며, 복음을 받아 들이고 성실한 자세로 실천한 사람에게에는 영생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이행할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3

몰몬일지

저희들의 목사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이사도 정원회 휴 비 브라운 장로의 선교 경험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대로 사는 매일의 생활을 통해 얻은 갖가지 경험은 모든 말일성도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체험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받은 영감, 신권을 활용한 일, 또는 교회의 보조 조직에 관계되는 일로서 여러분의 간증을 굳게 해준 체험담이 있으면 교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들려 줍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번역 출판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904년 내가 21살이 되던 해에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께서는 역까지 따라 나와 작별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기차가 떠나기 직전에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넌 어렸을 때 악몽을 자주 꾸었던단다. 넌 자다가 깨어서 옆 방에 있는 엄마를 불렀어.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하면 나는 ‘그래 애야, 난 여기 있단다. 아무 일도 아니니 다시 자거라’ 하고 대답했었지”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나 엄마 말을 따라 다시 곧 잠이 들었던단다. 아무 일이 없었어. 이제 네가 성인이 되어 16,000 킬로나 떨어진 이역 땅으로 떠나게 되었구나. 넌 엄마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이제 내가 들을 수가 없게 되었어. 밤에 잠이 깨어 고통을 당하거나 악몽으로 피로움을 당할 때가 있을 거야. 너를 괴롭힐 문제가 많이 있게 될 거야.

“그렇지만 넌 내가 네 곁에 없지만 너의 말을 들어 줄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다. 네가 어렸을 때 엄마를 믿고 부르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아버지 거기 계시요’ 하고 소리치면 그분은 틀림없이 대답해 주실 게다. 너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형체도 볼 수 없을지 모르나 그분은 너의 간구에 대답을 주실 것이며, 그분이 그곳에 계시고 너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 위안을 받게 된단다. 다시 말해서 넌 자리를 돌아 놓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잠을

청할 수 있게 될 거야”

나는 선교사로 성별을 받기 위해서 솔트레이크시티로 갔습니다. 내 모습은 내가 보기에든 몹시 흉하였읍니다. 말을 많이 탔기 때문에 다리는 활처럼 휘어 있었읍니다. 햇빛에 타서 얼굴은 주근깨로 덮여 있었으며 머리는 먼지를 뒤집어 써서 하얗게 되었읍니다. 나는 나보다 더 장래성이 없는 선교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읍니다. 6주후 영국 선교부에 도착해서 다시 놀워치로 파견되었읍니다. 그곳 지방부장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읍니다. “브라운 장로님 케임브릿지로 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운스 장로가 동행할 것입니 다. 그분은 45세이며, 장로님을 그곳에 모셔 드리고 다음 날로 파리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장로님은 혼자서 케임브릿지에 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읍니다. “케임브릿지에 있던 선교사는 그곳 주민의 총부리로 쫓겨났으며, 앞으로 그곳에 오게 될 선교사는 그들이 보는 즉시 총살시키겠다고들 한답니 다.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브라운 장로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케임브릿지로 내려갔으며, 도시의 곳곳에 반물몬기가撲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물론 선교사가 온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었읍니다. 어떤 기는 오히려 흥미를 돋구었으나 어떤 포스터는 마음을 무겁게 하였읍니다.

우리는 머물 곳을 찾았으며, 다운스 장로는 짐을 푸는 일을 도왔고 소책자에다 나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주었읍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 이러한 소책자를 돌려 주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다음 날 아침 그곳을 떠났읍니다. 나는 그때부터 소책자를 돌리기 시작했읍니다. 복음의 대화를 나누기는 커녕 명랑한 모습으로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도 보질 못했읍니다.

문을 두드린 집 중 90퍼센트는 나를 보자마자 문을 쾅 닫아 버렸

입니다. 정오쯤 되어 나는 좀 낙
 심했으나 오후에 다시 기운을 내
 어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나는 삼
 일 동안에 한 명 정도와는 복음의
 대화를 나누겠다고 마음먹고 토요
 일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날과 똑같은 반응을 보았
 으며, 주님께서는 일을 잘못하시
 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저기 계
 세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그래 난 여기 있단다”하고 대답하
 셧으나 좀 쉬라는 말씀도 해주시
 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소책자를 전달하고 집에
 돌아 왔습니다. 나는 주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방법을 알고 계실텐데 하
 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외롭고 쓸
 쓸하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는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임
 브릿지에서 500리 반경 안에서는

말일성도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
 니다.

난로가에 앉아 몸을 녹이며 왜
 주님께서는 어리석게도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
 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대답하며
 뛰어 나가셨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
 다. “여기 브라운 장로라는 분이
 살고 계시니까?” 나는 이젠 마치
 막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계시니까. 앞방에 계시니 들
 어 오세요”

그 남자는 방에 들어 왔습니다.
 그는 손에 소책자를 들고 있었습
 니다. 그는 의문에 찬 표정으로
 나를 쳐다 보더니 “브라운 장로십
 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부
 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
 신이 이 소책자를 저의 집에 두고
 가셨습니까?”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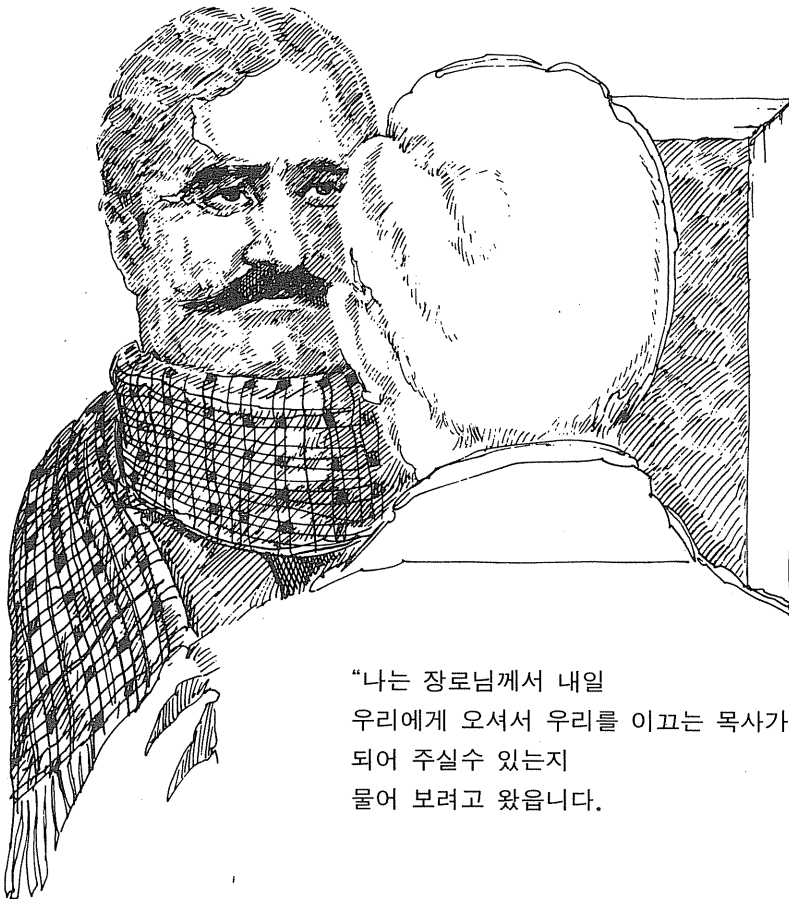
그는 이렇게 말을 계속했습니
 다. “브라운 장로님 지난 일요일
 열 일곱 가정이 영국 교회를 떠났
 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가족으로,
 큰 방이 있는 저의 집에 모였습니
 다. 모두들 그날까지는 영국 교회
 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
 께 기도하였으며, 한 주일 동안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목사를 보
 내 줄 것을 간구하기로 결정을 보
 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
 니다. “내가 오늘밤 집에 돌아 와
 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
 의 문을 열고 들어 서면서 나는
 이 소책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나
 는 이것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
 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장로님께
 서 내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끄는 목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지 물어 보려고 왔습니다.”

내가 선교 지역에 온 지 3일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선
 교 지역에서 어떤 모임도 가져보지
 않았고 참석도 해보지 못하였습
 니다. 그때처럼 도움이 필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차 “우
 리를 위해 목사가 되어 주시지 않
 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목사가 무엇
 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으나 그러
 한 상황에 처해서라면 다른 어느
 선교사라도 할 수 있을 대답을 하
 였습니다. 나는 턱을 안으로 잡아
 당기고 가슴과 어깨를 펴 보이며
 “물론이죠 그곳에 가겠습니다”라
 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나 갔으며, 나는 그때부터
 식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주
 인 아주머니를 불러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 가 잠잘 준비를 했습니
 다. 무릎을 꿇고 침대에 앉아
 내 일생 처음으로 하나님과 진지



“나는 장로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끄는 목사가
 되어 주실수 있는지
 물어 보려고 왔습니다.

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 왔고, 기도를 해 왔으나 그날 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처럼 진지하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영국 교회를 떠났으며, 이제 그들이 진리를 찾고 있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그토록 무거운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일어나 침대에 몸을 던져 잠시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밤이 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랫층으로 내려 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케임브릿지 대학 캠퍼스 주위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나는 시골 농장에서 소를 지킬 때 암소가 풀밭에 누워 여물을 씹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듯 그곳에 있는 많은 행복한 젊은이들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온통 복잡해 있을 때 이들을 보니 마음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점심 때가 가까워져야 집에 돌아왔으며, 다시 주인 아주머니에게 점심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다시 산책을 나섰습니다. 오후 온종일을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나는 주님께 다시 간구하였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크게 뒤덮여 폭풍우를 내려 주셔서 아무도 예정된 모임에 올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난로가에 앉아 꼼꼼히 생각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마침내 7시 15분 전이 되었으며, 나는 일어나 외투를 입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장갑까지 끼었습니다. 나는 전에 가

져 보지도 못한 단장을 사서 들었습니다. 전에 써보지 못한 뺨뺨한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밤 만났던 사람이 내가 오는 것을 보자 달려 와서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하며 매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들어 갔습니다. 큰 방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새로 오는 목사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점점 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설교를 해야 할지 기도를 계속해야 할지를 몰랐으나, 결국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 높은 영광 보좌’ 라는 찬송가를 부릅시다” 이 말이 끝나자 모두들 나를 쳐다 보았으며 이 노래를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지 못한 음성으로 독창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의자 옆에 앉아 기도를 드릴까요?”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 밖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생애에서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 다른 옆 사람과 진지하게 심각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내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들이 진리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하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밤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

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으며,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모든 사람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 두 번째의 찬송가를 부르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45분 동안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내가 전에 들어 보지 못한 설교를 하였으며, 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설교는 처음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그들은 나에게 물려 들었고 내 손을 잡고 입맞추었습니다.

나는 마지 못해 그 모임에 끌려 갔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삼 개월만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다호주, 유타주, 기타 미국내의 여러 곳에 이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손자들을 다시 선교 지역에 보냈으며, 그 첫 모임의 결과로 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많은 선교사를 통하여 1,000여명이 복음 안에서 개종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최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만난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최고 연장자인 한 형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느냐요? 나는 인생의 어느 일보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친구라는 사실도 알며 그분이 가까이 계시어 내가 부르는 소리에 답을 주신다는 것도 알며,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圖

1974년



8월 16, 17, 1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



지역대회

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 8월 16, 17, 18일에 이 네 나라의 성도들은 교회의 지역 대회에 함께 모였으며,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들로부터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 신앙과 용기를 얻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들이 그곳에서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한다면 북부 유럽에서 주님의 사업은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대회가 끝났을 때 어느 회원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장래에 대해 새로운 생각과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 회원은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 많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음악과

복장과 그밖의 다른 것에서 우리가 종래에 가져왔던 표준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게 된 것은 실제로 스톡홀름에서 지역 대회가 개최된다는 광고가 있을 때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때부터 영적이며 세상적인 두 가지 준비가 시작되었다. 덴마크 선교부장 그랜드 알 입손은 대회가 다가 오기까지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때를 준비를 위한 때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란 다름아닌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렵니다’란 말을 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영적인 준비의 일환으로 대회 전에 신전 참석수가 늘어난 사실을 들 수가 있다. 각 선교부는 정기적으로 여름 동안 몇 차례 신전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금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 대회에 참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도 대회를 앞둔 후 여러 달 동안 신전 참석자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갔다. 어떤 지역에서는 거

의 2배로 그 수가 증가되었다.

영적으로 준비를 한 결과 영적인 대회를 맞을 수 있었다. 김볼 대관장님은 다섯 차례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모든 계명을 지킬 것과 그들의 각 나라에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도록 격려해 주셨다. 덴마크 스테이크는 대회를 갖기 전인 6월에 조직되었다. 성도들은 나아가 복음을 이웃에 전파하고 북유럽에 더욱 많은 스테이크가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라는 김볼 대관장님의 권고를 특별히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기게 되었다.

주일 아침 신권 역원회에서는 스테이크 건설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이곳에 스테이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전이 없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전을 원하십니까? 신전을 잘 이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전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각기 신전을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개종자를 받아 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 지역 내에서는 신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스테이크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토록 준비하고 먼 거리를 여행해 온 것은 이와 같은 힘찬 메시지를 전달받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휴가를 취소하고, 과외로 일을 더 하여 여비를 저축하였다.

대회 계획 위원회는 오랜 노력 끝에 성도들에게 그같은 경험을 맛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계획이 필요하였다.

대회 장소를 물색하고 빌리는 일에서부터 안내인의 뱃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크고 작은 문제를 결정하고 계획해야 했다. 케이 에이지 요한슨 형제의 지도 아래 여러 소위원회가 장비와 설비, 여자 안내원, 안내소, 안내지도, 여행과 교통, 숙소, 계약, 음식, 구급 대책, 음악 및 예술 행사 전반에 걸쳐 계획하였다.

과중한 책임을 맡은 소위원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숙박 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숙소를 구하지 못하거나 그 숙소에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약 5천명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



에 이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수없는 변경, 취소, 뒤늦은 등록 등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다른 위원회는 뒤에서 조용히 일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대회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노력을 기울인 위원회는 금요일 저녁 문화 행사로 축제를 준비한 위원회였다. 이 행사에는 400명 이상의 회원이 자기 나라 고유 의상을 입고 민속 음악, 노래, 무용 등 다채로운 순서에 참여했다. 이 축제로 흥겹고 즐거운 저녁 한때를 맞았으며, 대회 활동을 시작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는 참가한 4개국의 국기를 든 84명의 기수가 입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각 나라의 국가를 부른 다음 각 그룹은 음악과 무용과 노래로써 자기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펼쳐 주었다. 무대에서 펼쳐진 연예 활동은 참으로 장관을 이루었다. 이 행사에 쏟은 노력과 준비가 어느 정도였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축제를 위해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 있는 교회의 각 지부와 지방부에서는 작은 규모로 총연습을 실시했다. 이것은 이 대회의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었다. 따로 떨어져 제각기 연습한 것을 한데 묶어 발표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예술 행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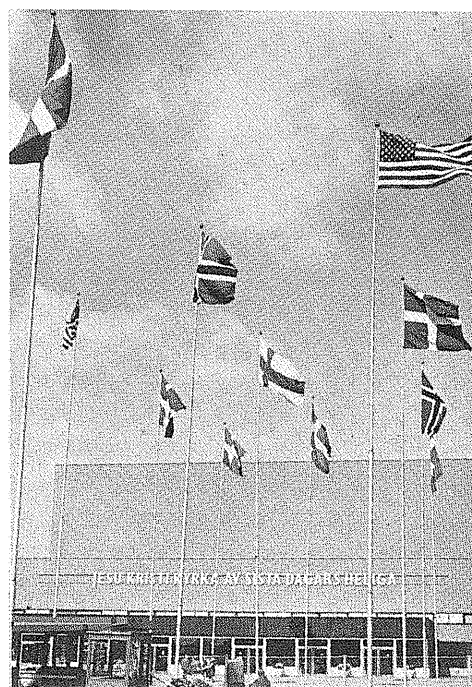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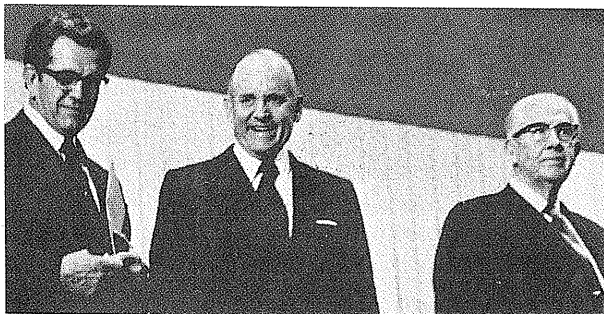
전 선교부에서 음악인을 모아 하나의 연주 그룹을 만들었다. 그중에는 전문가도 있었고 불과 2-3년 동안 악기를 다루어 본 사람도 있었다. 악보가 있어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보는 볼 줄 모르고 귀로 듣고서만 연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 전문적인 편곡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곡을 간단하게 편곡하였으나 그곡은 전문가의 작품으로 들렸다. (그는 이 일에 대한 보수를 원하지 않았다) 이 연주 그룹에는 첼로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 재능이 있는 청년을 뽑아 자기 고향에 있는 관현악단의 첼로 연주가에게 무료로 렛슨을 받도록 추천해 주었다. 그는 매일 연습했다. 관현악단 총연습 때에 참석하여 연습을 하기도 했다. 대회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 관현악단의 한 연주가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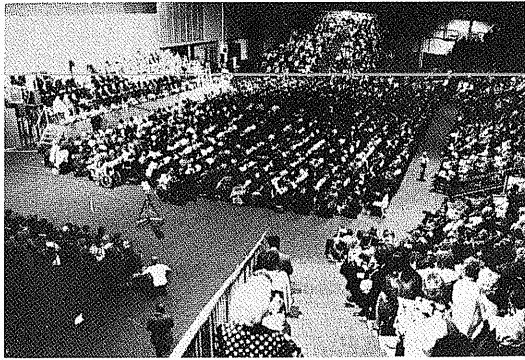
비싼 현을 그에게 빌려 주었다.

이 특별한 연주 그룹은 대회 전에 두 번 모여서 연습을 해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연주는 훌륭하였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연습하여 주님의 도움을 얻었다. 그날 행사에 참여한 다른 그룹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밟았다. 그들은 열심히 연습을 했고 몇 차례의 총연습을 위해 먼 거리를 여행했다. 주님은 그들의 노고에 축복을 내려 주셨다.

각 그룹이 준비한 것을 공연할 때마다 열광적인 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나왔다. 그날 연주한 곡은 에드바르트 그리고 작품 "Landkjenning" (발견)이었다.

스웨덴 담당 십이사도 지역 대표 라이드 에이치 존슨은 이 대회를 위해 연락 책임을 맡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나는 문화 프로그램 중 마지막 곡으로 연주할 음악을 어떤 곡으로 선정할까 망설였습니다." 그가 이 곡 선택 문제를 위원회와 상의하지 않았지만 위원회가 추천한 곡에는 Landkjenning가 포함되어 있었다. 후에 노르웨이인들이 벌써부터 이와 비슷한 음악을 발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양측에서 모두 똑같은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준비하던 그 곡을 기꺼이 포기하고 새 곡을 연습하였다.

마지막 곡을 지휘했던 73세의 노르웨이 지휘자 텀 알베세터는 그 때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같이 함께 노래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국가간의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며, 교회에서까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노래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한데 뭉치게 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얼마나 가슴에 벅찬 감동을 느꼈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단합의 정신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함께 손잡고 일하여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쳤다는 이와 같은 느낌은 결코 작은 선물이 아닙니다.”

비록 대회장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대회의 말씀을 들긴 했지만 그들이 나란히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곳은 한 가지의 목적으로 충

만해 있었다. 36번의 대회 말씀을 모두 4개국어로 통역해야 했다. 그러니까 144번의 말씀이 있는 것과 같다. 이 일을 맡기 위해 60명의 통역자가 필요했다. 통역된 말씀은 휴대용인 헤드폰을 통해 청중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 홀의 어느곳에 앉아 있든지 노르웨이인은 자기 나라 말이 나오는 채널로 돌려 모국어로 대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노르웨이인 바로 옆에 핀란드인이나 덴마크인 또는 스웨덴인이 앉아서 자기 자기 나라 말로 말씀을 경청할 수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소한 것들은 지역적인 문제이다. 대회에서 중요한 것은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달받기 위해 준비해 왔으며 그러기 위해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이다. 대관장단에서 김블 대관장님과 태너 부대관장님이 참석한 이외에도 10명의 총관리 역원이 참석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과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가 참석했으며 십이사도 보조에서는 버나드 피 브록뱅크 장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장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가 대표로 참석했다. 칠십인 제일 정의회에서는 에이 테오도르 터틀 장로가 그리고 관리 감독단에서는 본 계이 페더스톤 감독이 참석했다. 이 모든 형제들이 영감에 찬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가르쳤다.

토요일 밤 부모의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절증하는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가정 복음 교육과 가정의 밤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김블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태초부터 근본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성임하셨습니다. ...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건전한 생활로, 참다운 가정 생활 즉 가족이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생활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가장으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그리고 사회 생활이나 직장을 가진 어머니를 가정으로, 그리고 회락에만 빠져 있는 자녀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블 대관장님은 토요일 저녁 모임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계명을 지키고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자신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대관장님은 청소년들에게 그와 같은 결의를 가져 세상 의 어떤 유혹에도 의연히 맞설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다.

태너 부대관장님은 토요일 저녁에 모인 부모들에게 부모가 보이는 모범의 중요성과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나는 한 남자가 자기의 신앙대로 생활하며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매사에 아내의 지지를 얻으며 사랑과 화평이 충만하고 늘 함께 기도하고 가정의 밤을 가지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인도해 갈 수 있는 착한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보다 더 복된 곳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 아침 신권役員회에서 태너 부대관장은 접견을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주셨다. 이 모임에 이어 있는 일반 총회에서 그는 1830년 교회가 조직된 이후 지금까지 이룩한 성장에 널리 전파되어 온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특히 대회의 주요 주제의 하나인 선교사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어디에 있거나 간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속의 의문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가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유럽의 성도들과 가졌던 경험담을 일요일 아침 말씀의 서두로 소개하셨다. 그는 유럽인에 대한 그의 사랑과 스칸디나비아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주님의 도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성도들에게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훈계를 주고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한 간증과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준비로...세상에 그의 말일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온 세상 각 나라 지도자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영감과 인도를 구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나는 통치자와 백성에게 다같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권고합니다. 만일 이를 거절하면 사악한 자에게 약속된 심판과 재난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회의 모든 모임을 통해서 총관리 역원의 말씀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와 선교부장단 보좌와 선정된 몇몇 부모와 청소년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마지막 모임이 끝날 무렵 킴블 대관장님이 다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는 대회에서 한 총관리 역

원들의 말씀을 요약했으며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대회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한 번 더 대회의 주요 주제였던 우리의 선교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이 경륜의 시대 초기의 교회 성장과 초기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였는가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모인 4천명의 성도 여러분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보다 더욱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에게는 빛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세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을 말로 덮어 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노력할 때 구원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훈계의 말씀에 덧붙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기원하셨다. 그는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족 가운데 혼자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의롭게 서있는 일도 있습니다. ... 하나님은 비록 혼자일지라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받드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여러분과 작별하기가 참으로 섭섭하다”고 하시며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한 번 더 그의 간증을 전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스칸디나비아의 성도들에게 내려질 것을 간구하였다.

아쉬운 작별이었다. 폐회 찬송과 기도가 끝난 후에도 성도들은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과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을 부르며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성도들이 대회장을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슬같은 눈

물이 맺혀 있었다. 눈물은 곧 마르지만 대회의 그 기억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형제는 대회가 끝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30-80명의 회원을 가진 지부에서 왔습니다. 4,000명의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십니까?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자매도 이렇게 말했다. “대회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공기와 태양이며, 꽃과 비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또 다른 한 회원은 “이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스칸디나비아의 성도들에게 큰 힘이 있고 북유럽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백성이 많으므로 주님께서 는 반드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교회 초기에는 신앙이 강하고 충실한 스칸디나비아의 성도들이 미국의 유타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는데 커다란 몫을 담당했었다. 그러므로 스칸디나비아의 성도들이 지역 대회를 갖는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북유럽에 남아 있었던 성도들이 주님의 종에게 들은 훈계에 따를 때 그들의 힘과 영은 더욱 자라서 번창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 ㉞

집사의 임무

본 제이 페더스톤 감독

관리 감독단

제2 보좌

데드 헤닝거 그림



몇 년 전에 나는 좀처럼 잊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험준한 산을 등반하다가 독수리의 동우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동우리에는 알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 한 개를 꺼내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둥지에 넣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다른 병아리와 함께 독수리 새끼도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새끼 독수리도 병아리와 같이 자랐습니다. 병아리처럼 발로 땅을 긁어 모이를 찾아 먹었습니다. 완전히 자랐지만 날지는 못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독수리가 자라는 과정을 흥미있게 관찰하였습니다. 그는 독수리가 날으는 것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독수리를 안고 지붕으로 올라가 “네가 독수리거든 날아 보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곧 땅으로 내려 와 병아리처럼 모이를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젊은이는 독수리를 안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아침의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그는 “네가 독수리라면 날아 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햇살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날개 끝까지 힘이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 소나무의 향긋한 냄새,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상쾌감이 이 큰 날짐승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독수리는 젊은이의 손에서 몸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높은 산봉우리 수백

피트 상공으로 솟아 올랐습니다. 점점 높은 공중으로 올라 갔습니다. 지상의 병아리가 평생을 보아도 못다 볼 시야를 일순간에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독수리는 땅에 매인 날짐승으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사도 일단 자신의 신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봉사의 한계를 부수고 권세와 기쁨을 느끼게 되면 땅에 묶인 가금이 된다거나 평범한 소년으로 남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되고 그의 성스럽고 택함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집사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성임되나니, 성임되는 자는 성임하는 이 안에 계시는 성신의 능력으로 성임되느니라.” (교성 20 : 60) “본 교회에서 정식으로 조직된 지부가 있는 곳에서는 그 교회 회원의 거수 지지 없이는 어떠한 직책에도 성임될 자가 없느니라.” (교성 20 : 65)

집사의 임무로서는 성찬 전달, 회원 가정 방문, 금식 헌금 수집, 감독과 그의 보좌를 위한 심부름, 제사와 교사가 충분히 없는 지역에서의 가정 복음 교육 후임 동반자가 되는 일 등이 있습니다. 대개의 집사가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집사는 이보다는 좀더 작다고 할 수 있으나 매우 중요한 다른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장 표준 : 모든 집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이행할 때 합당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성찬을 전달할 때는 단정하게 교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외모로써 신권의 성스러움을 해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못해서도 안되었습니다.

집사가 감독의 심부름을 하게 될 때는 외모가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며, 감독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가 회원의 집을 방문할 때는 신권의 지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활동 회원이 교회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접촉의 기회가 금식 헌금을 수집하러 가는 집사의 월례 방문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간단한 방문 기회가 비활동 회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집사는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며, 행동도 온화하고 우정이 깃들어야 합니다. 젊은 집사가 주는 순수한 미소와 굳은 악수가 비활동 회원에게 깊은 반응을 불러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도 이와 같은 태도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집사는 선임 동반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방문한 가정에서 간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 : 집사는 매사에 합당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찬을 전달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장난을 치거나 얼굴을 찌프리거나 웃거나 다른 친구를 떠밀거나 하며, 이 성스러운 의식을 대수롭지 않게 보려는 집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젊은이는 자신이 이러한 의식을 집행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중요한 책임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집사는 하나의 표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이중적인 표준이 없습니다. 집사는 저속한 이야기를 삼가해야 하며, 외설 잡지 등을 읽지 말아야 하고, 거칠고 조잡스러운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표준대로 생활하려면 오랜 성숙의 시간을 요하게 되며, 이를 실천한 집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봉사하는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합당성 : 모든 우리의 신권 지명은 합당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집사는 모든 일에 정직해야 합니다. 행동과 표현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오락 장소에서도 남을 속여서 행동의 표준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는 건전하고 순수한 사고 방식을 지녀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환각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합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집사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목표는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살려고 성실히 노력할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봉사 : 오래 전에 나는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과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모임 중간 휴식 시간에 나는 그와 함께 산책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더스톤 형제님, 형제님께서서는 신권을 소유하신 분들이 남을 돕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두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마디의 말씀은 내 인생에 큰 동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집사가 자기 이웃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 바랍니다. ㉠



“네가 독수리라면
날아 보아라”

교사의 임무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단

제2 보좌

테드 헤닝거 그림



내가 이러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읽은 자자 미상의 한 이야기가 먼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오래 전 안개가 자욱한 영국의 런던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개 낀 역에 내리는 손님들을 등불로 안내하여 목적지까지 바래다 주는 일을 하며 늙은 어머니와 다섯 명의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의 요청으로 어느 지역까지 그를 안내해야 했습니다. 이날은 안개가 몹시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으며, 등근 돌을 간 보도는 매우 미끄러웠습니다. 이 소년은 몹시 위험하여 잘못 하다가는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님의 청에 응했습니다. 손님들 중 두 명이 손에 등불을 켜 그를 뒤따랐습니다. 한참만에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손님은 그에게 약속한 금액을 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받아 넣고는 다시 부지런히 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가 역에 닿자마자 몇몇 사람이 안개를 뚫고 그에게로 와 각자 돈을 꺼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소년은 자기가 번 것이 아니므로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개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단다. 그런데 비가 든 등불을 보고 멀리서부터 너를 따라 온 거야. 우린 안전하게 인도해 준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우리가 너를 따르지 않았다면 아직도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걸.”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찾도록 도울 때 성임된 교사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봉사를 통해 그의 신권을 성실히 이행할 때 그는 다른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스퀘어를 방문할 기회를 종종 갖게 됩니다. 신전의 서쪽 벽에는 흥미를 끌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큰 곰 성좌를 상징하는 위성도가 있습니다. 1961년 7월 2일 일요일 선교부장 세미나가 있기 직전에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비리 대관장님께서 솔트레이크 신전이 건축 중일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은 건축가인 트르만 오엔겔에게 해의 성도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뜻으로 밀레니얼 스타지에 기사를 쓰게 부탁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엔겔 형제는 그의 기사에서 신전의 외부에 그려진 몇 가지 형상의 상징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리 대관장님은 엔겔 형제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해의 영광을 상징하는 해석과, 월석과 성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것들을 보셨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징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것으로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나도 오늘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는 신전 서편 끝 탑 아래에 있는 것을 말했는데, 그것은 천문학자들이 큰 곰 성좌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북두칠성이라 부르며, 그 맨 끝에 있는 두 개의 별은 북쪽을 향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은 자가 하나님의 신권을 통해서 길을 찾는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이러한 신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는 남을 인도하고 지지하며 깨우쳐 주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길을 잃은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해줍니다.

아론 신권의 교사직에 성임된 청소년은 가정 복음 교육을 이행하며, 성찬을 준비하고, 안내를 맡고, 부탁을 받았을 때에는 집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이와 같은 지명을 이행할 때 그들은 주님께서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성 20 : 53)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임무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1970년 10월에 열린 대회에서 빅터 엘 브라운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 신권이란 젊은이들을 바쁘게 움직이게 하거나 사고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왕국의 통치 기구의 일부입니다. 그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사업과 영광을 이루실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맡겨진 임무를 이행할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회 보고, 1970년 10월, 125페이지)

가정 복음 교육을 행하면서 교사는 타인의 삶을 축복하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특별한 기회를 받게 됩니다. 나의 한 친구는 이런 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한 신권 소유자와 교사의 연령에 이른 그의 아들이 우리 집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가 복음대로 생활하는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아들의 외모나 행동을 보고 아버지처럼 열의를 갖고 있음도 알았지만 별로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방문을 해서 집에 있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이 소년을 주시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조용한 편이었으나 그의 행동이나 말에서, 그가 지닌 신권을 매우 존중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곧 우리 아들이 일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방문을 마치고 떠나려 할 때 나는 그 소년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기도에서 주님께서 아들을 잃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곧 태어날 아기를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내 아내가 해산을 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이 젊은 교사의 감수성과 성실한 태도 때문에 감동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계속해서 이 형제는 정기적으로(한 달에 한 번 이상) 우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은 직후 이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선물을 가지고 찾아 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이 교사는 무사하게 아기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소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지명의 중요성을 잘 아는 소년입니다. 다른 예도 들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이란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권을 활용할 수 있는 의로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교사는 교회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소신권에 속한 필요불가결한 직분입니다. (교성 84:30) 그 직분이 필요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닌 사람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교사는 그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사는 교회에서 그가 맡은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권의 임무를 마치 못해 행하는 예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임무를 이행할 때 우리가 맡은 역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축복이 모든 교사에 임하여 그들이 맡은 바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예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진지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㉔



“아내와 나는 이 젊은 교수의 감수성과 성실한 태도때문에 감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의 임무

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

테드 헤닝거 그림



나는 캐나다 서부에서 살던 어린 시절부터 말을 좋아했습니다. 내가 15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께서는 항상 형과 나에게 말을 주셔서 타게 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에게 여러 필의 말이 있었습니다. 힘이 빠져 있는 조랑말도 있었습니다. 한두 필은 힘이 좋고 잘 생겼습니다. 나는 어린 제사의 시절부터 50세가 된 지금까지 말을 무척이나 좋아하면서도 가까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나는 잘 길들인 암말 한 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과 가까이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말은 내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으로 말은 나에게 아론 신권을 소유했던 젊은 시절과 성인이 된 후에도 신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게 한 귀중한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집에 멋진 말 한 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풀로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잘 훈련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아니 하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아 본 것 중 가장 멋진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소년이라도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출발 동작도 빨랐고, 정지 동작도 좋았으며, 달리는 속도도 빨랐고, 다른 말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 말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에 타기만 하면 나를 태우고는 어디론가 달리는 것입니다. 나에

게도 책임은 있겠으나 어쨌든 이 말은 내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항을 하였으며 내가 가고자 하는 데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반항적이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잘 받은 훈련이나 능력이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숙녀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으나 곧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마침내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넘겨 주고 말았습니다.

클리퍼라는 말은 아름다운 밤색의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반순종으로 잘 훈련된 일을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시킨 후 풀어 주면 힘이 난 망아지처럼 뒷발을 쳐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야단이었습니다. 언제인가 나는 클리퍼를 타고 소를 집으로 끌러고 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밧줄을 안장 끝에 대고 묶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을 거의 다 묶었을 때 안장에 있는 머가 부러졌고 안장과 나는 클리퍼의 발 아래로 나가 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말은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으나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더니 내가 안전하게 몸을 피할 때까지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구한 캐티는 혈통이 좋은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티는 아름다운 밤색 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리하였고 머리를 곧게 쳐들고 다녔습니다. 캐티의 첫째 새끼는 경기에서 여러 개의 리본을 땀습니다.

우리가 캐티를 처음 구하였을 때는 그 모습이 초채였습니다. 잘 다루어지지 않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돌봐 준다

면 곧 회복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캐티는 내 뜻대로 되어 주었습니다. 캐티는 내가 지금까지 소유한 말 중 가장 멋진 말이 되었습니다. 잘 훈련을 받지 못한 점을 뺀다면 정말 참피운 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길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활기를 되찾고 경중 경중 뛰었고, 고개를 치켜 든 모습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못보던 물건을 잡기 보게 되면 고개를 떨어 뜨렸습니다. 어느 날 캐티는 개에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뒷 다리를 하늘 높이 올리고 뛰더니 드디어는 내 다리에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놀란 사슴처럼 전력 질주를 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름답고 영리한 모습을 한 캐티는 지금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수지는 캐티가 낳은 새끼입니다. 지금은 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닮아 아름답습니다. 수지는 3년 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지를 별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처음 훈련을 시킬 때만큼 성과가 없고 퇴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규적으로 훈련을 시켰다면 지금쯤은 기본 좋게 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젊은이의 지적인 성숙도가 말의 영리함에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제사 여러분은 황금의 시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힘과 무제한한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이요 책임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사업을 대행하며 여러분의 행적을 하늘에서 인정받게 되는 권능인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서 지난 5, 6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정원회의 회장인 감독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찬식, 침례 의식,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한 책임을 가르쳐 주셨으며 현재는 아론 신권 프로그램을 이끄는 지도력에 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여러분이 타인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며, 어떻게 깨끗하게 생활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찬대에 앉아서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권을 통해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베풀 때도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구세주에게 침례를 베풀 때 지녔던 것과 똑같은 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교성 20 : 47)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가정 복음 교사로서 여러분의 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교훈을 잘 배운다면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때 오는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러한 사탄의 힘이란 반항입니다. 여러분은 신권의 권능을 지닌 사람과 조화를 이루게 되며, 선교사가 되고, 신전에서 결혼하며, 교회에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큰 책임을 맡을 준비를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독님과 함께 나는 여러분들을 신뢰하며, 여러분께서 신권을 존중할 때 여러분 나름의 뜻깊은 방법으로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계속하여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해 갈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㉔



.....곧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마침내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소녀 여러분은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데스 지 캡
아론 신권 및
청년 회장단
제2보좌
데드 해닝거 그림

이웃

“그들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요?” “너무 어리진 않을까요?” “그들은 경험이 너무 없어요.” 의아심과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젊은이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선택된 세대에 대해 진정한 신뢰와 확신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소녀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아론 신권 상향회에서 갖는 의무와 책임에 관한 영감과 계시를 받도록 준비할 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젊은 월계반 회장은(나이는 젊지만 성숙한 이해력을 가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나는 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으므로 내 기도도 매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와드에서 온 젊은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감독이 간증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젊은이들을 보며 모임을 사회하는 젊은 제사에게 모임을 마칠 것을 부탁했지만 마음을 감동시키는 간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차례를 기다리던 한 소녀가 차례가 오자 기회를 놓칠세라 자리에서 일어섰

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연단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17명으로 구성된 반의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그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님은 저에게 보좌를 결정하라고 하였고 필요하다면 주님께 간구하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꼼꼼히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반 회장은 발을 한 발짝 떼어 놓고 곳곳이 섰다가 몸을 다시 앞으로 내민 다음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17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끝낼 때마다 명단에 있는 사람을 한 명씩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삼 일간을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겠다는 초조한 빛을 보이다가 마음의 안정을 찾은 듯 그녀는 열의에 찬 어조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저는 반원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좋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반원 개개인에게도 관심을 보여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젊은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며, 나도 역시 주님께서는 그녀의 보좌로 누구를 원하

셨겠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두 소녀는 확신에 찬 미소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감독님을 통해서 받은 지명에 관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감을 간구할 때 성신의 영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베키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리와 성약 9:8)

여러분은 마음 속에 간직한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또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이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소녀를 돌보며 부름을 이행할 때 주님의 손에 놓인 도구가 됩니다.

와드에서 보좌의 직을 맡고 있는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좌로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남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회장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는 함께 기도할 수 있지요. 한 사람에게는 너무 큰 책임일 수 있어요.”

좀 수줍어하나 마음 속에 느낀 바를 나누고 싶어하는 금발 머리를 한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원이예요. 저는 맡은 일이 별로 많지 않아서 무엇엔가 참여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책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지요. 저도 책임을 받으면 발전할 수 있고, 주님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반에는 비활동 회원이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나와요. 정말로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저처럼 그들도 발전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그들이 나오게 되길 바랐어요.”

전화 벨이 울렸고 또 훌륭한 경험담을 나눌 수 있었읍니다.

“너무 늦었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회원이 몇 안되는 어느 지부 자매의 음성이 들렸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읍니다. 정말로 무어라 말할 수 없군요. 골치덩어리였던 한 소녀가 이제 반회장이 되었답니다. 전 그녀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느껴 보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요. 우리는 관심사를 함께 토론하였으며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였읍니다.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토의를 했으며 떠나기 전에 다시 무릎을 꿇었고, 이번에는 그 소녀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읍니다. 우리는 함께 간절히 빌었읍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겸손하면서도 흥분된 어조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이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음성에서도 확신의 증거를 들을 수 있었읍니다. “그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책임을 이해하도록 도울 때 그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젊은이는 교매의 니파이가 한 다음과 같은 말씀처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니파이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

“저는
17명으로 구성된 반의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읍니다.
감독님은 제가 그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일 3:7)

나는 주님께서 오늘날 이 선택된 젊은 세대에 관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맡은 바 책임에 관해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읍니다. 소녀 여러분은 충분히 나이가 들었읍니다. 圖

수수께끼 가족 나무를 올라가 보세요

엘리자베스 엘 니콜스 글
에드 매리온 그림

여러분은 최근에 계보 사업을 하
셨습니까? 다음 몇 가지 질문을
연습 문제로 풀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실제로 여러분의 가족 나무를
만들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에게 하라고 하셨으나 매우 복잡
한것같이 여겨지는 이 사업이 실
은 행복한 마음으로 몰두할 수 있
는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최초로 기억의 책을 만든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누구인가? (모세서 6: 5~8) _____
2. 기억의 책을 언급한 구약 시대의 예언자 세 명을 열거하라 (모세서 6: 5~8, 45~46; 말라기 3: 16~18) _____
3. 계보에 관한 중요한 성구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네 권의 표준 경전에 나온다. 색인표를 찾지 말고 처음 몇 구절을 외워보라 (말라기 4: 5~6, 니파이삼서 25: 5~6, 교리와 성약 2 편, 요셉 스미스 2 서: 38) _____
4. 말라기가 약속한 대로 엘리야는 지상에 다시 왔나? (교리와 성약 110: 14~16) 예(), 아니오() _____
5. “영원한 복음에 속한 모든 문제 중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교리와 성약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나? (교리와 성약 128: 17) _____
6. 대리 침례를 받은 영에게는 어떤 축복이 내려지나? (교리와 성약 128: 22) _____
7.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관한 기록의 중요성은 언제 개정되었나? (교리와 성약 128: 5) _____
8. 왜 아담은 그의 아내를 이브라고 불렀나? (창세기 3: 20) _____
9. 예언자 에녹이 아담에 관해 알게 되었고 아담의 자녀의 계보가 실린 책 이름은 무엇인가? (모세서 6: 8~25, 45~47) _____
10.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의 친척인가? (모세서 4: 26, 아브라함서 1: 3) _____

10. 에 10. 5
에 6. 9
8. 8
7. 7
6. 6
5. 5

4. 에 4. 133688
3. 3
2. 2
1. 1
:

첫 발을 크게 내딛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하고 리틀 울프는 소나무 가지가 깔린 땅위를 허겁지겁 뛰며 뒤를 돌아다 보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작은 곰 새끼는 계속 쫓겨거리며 그를 쫓았다. 이 새끼 곰은 어머니를 잃고 아무나 어머니로 받아들이려는 듯 따랐으며, 이제 놀라 겁에 질린 인디안 소년을 쫓고 있는 것이다.

리틀 울프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딸기를 따고 있다가 나무 가지 사이로 가지에 매달려 딸기를 따먹으려하고 있는 새끼 곰을 보았다.

이 소년은 새끼 곰을 보자 기뻐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조용히 서서 지켜 보았다. 그는 새끼 곰을 길러 보고 싶었다. 그러나 리틀 울프의 아버지 오토는 야생 짐승의 새끼를 골려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었었다.

새끼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낀 어미 곰은 몹시 사나워지게 마련이다. 새끼 곰의 어미가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리틀 울프는 작은 곰을 피해서 쏜살같이 뒷걸음질쳐 도망갔다. 그러나 그는 다른 용감한 인디안들처럼 숲속을 미끌어져 가듯 내려 갈 수는 없었으며, 갑자기 작은 나무 가지를 밟아 부러뜨리고 말았다.

소년을 본 새끼 곰은 맹렬히 그에게로 달려 들었다. 리틀 울프는 어미 곰이 나타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리가 네 엄마한테 가란 말야”하며 그는 인디안 부락을 향해 뛰었다.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다 보며 달렸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큰 통나무를 볼 수 없었다. 그는 나무에 걸려 몸이 공중에 치솟았다가는 소나무 가지 발 위로 거꾸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엄마는 항상 나에게 바보 같은 울프라고 이름을 붙일

매리 조이스 캡
제리 톰슨 그림

걸 그랬어 라고 하였지”라고 생각하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 말씀이 맞아” 그는 넘어질 때 빠진 머리깃털을 줏어 손으로 쓰다듬으며 펴 보았다.

새끼 곰은 넘어져 겁에 질린 소년에게로 다가 왔다. 새끼 곰은 그에게 와서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활았다.

그리고는 다시 맨 가슴을 활고 그의 턱에다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인디안들은 추장의 아들이 곰과 입을 맞추는 것을 보았다면 무어라고 생각할까!

리틀 울프는 나무로 기어 올라 가서 새끼 곰에게 나무 가지를 내던져 보았으며, 다시 맑은 물이 흐르는 강쪽 근처에 있는 인디안 부락 근처의 개간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바짝 뿔뿔한 곰과 함께 부락을 향해 달려 가는 진흙투성이의 치친 인디안 소년을 보고 웃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화가 난 어미 곰이 뿔뿔한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허겁지겁 아이들을 모두 집안에 들어가도록 했다. 몇몇 용감한 인디안은 활을 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했다.

“마을 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피해야지.”하고 리틀 울프는 생각했다. 이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험 속으로 몰아 넣은 것이다. 그는 항상 잘못만 저지르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정말 지금까지 용감성을 발휘한 적이 없었다. 갑자기 그는 새끼 곰을 왈칵 잡아 채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왔지만 다시 숲속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 갔다. 그는 어미 곰을 찾아 새끼를 되돌려 주면 온 마을이 안전하리라고 생각되었다.

“새끼니까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거야”하며 중얼거렸으나 곧 지치기 시작했다. 새끼 곰은 무거웠으며, 마치 장난이라도 하듯 계속해서 그의 턱을 활았다. 소년이 딸기



밭까지 왔을 때는 지쳐서 걸을 수 밖에 없었다. 새끼 곰을 내려 놓고는 다시 보라빛 열매가 주렁 주렁 달린 나무 가지를 향해 곰을 밀어 부쳤다. 그는 새끼 곰이 쩡쩡거리면서 열매를 따먹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야 리를 울프는 살머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옆 숲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 리를 울프는 갑자기 공포에 질리고 말았다. 다행히도 그는 큰 나무 옆에 있었다. 붙잡을 만한 가지가 없었지만 나무를 타는 것은 그의 장기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무 등치를 양팔로 잡고 기어 올라가 큰 가지에 닿았을 때 어미 곰이 새끼 곰을 데리고 그가 올라 간 나무 밑에 나타났다.

새끼 곰 주위를 맴돌면서 어미 곰은 의심스러운듯 냄새를 맡았다. 어미 곰은 새끼 곰이 자기 새끼라는 것은 확인했으나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듯이 냄새를 맡고 야단이였다. 새끼 곰에서 사람 냄새가 난 것이다.

리를 울프는 숨을 죽이고 지켜 보았으며, 그의 가슴에서는 망치를 내려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만일 곰이 그의 냄새를 맡아 나무에 기어 오른다면 나무 가지가 꺾어지거나 땅에 닿을 수 있게 휘어질 것 같았다. 그때는 할 수 없이 뛰어 내려 도망가는 수 밖에 없다. 그는 달리는 곰을 본 적이 있으므로 도저히 자기가 안전하

게 달아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꿈의 걸음걸이는 둔하지만 바람처럼 달릴 수가 있다.

그는 아버지가 달리는 꿈을 피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덕 아래로 뛰어 달아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일이 생각났다. 꿈은 앞발이 짧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야 하며, 그렇지 않고 빨리 내려 오다가는 균형을 잃어 튕굴게 되는 것이다.

새끼 꿈은 어미를 꼭 따라 다녔으나 어미는 화를 내며 접근을 막았다. 난처하게 된 새끼 꿈은 주위의 냄새를 맡으며 으르렁거리는 어미를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리틀 울프는 꿈이 자기가 있는 나무를 알아 보자 “어머나”하며 소리질렀다. 꿈은 뒷다리에 의지해서 육중한 몸을 들고는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리틀 울프는 흔들리는 나무를 꼭 붙잡았으나 자기 발 아래에서 무서운 이빨을 갈며 으르렁대는 꿈을 보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를 떨어뜨릴 수 없겠다고 생각한 꿈은 발톱으로 나무 등치를 파고 굽기 시작했다. 나무 껍질이 벗겨져 나갔다. 소년은 꿈이 나무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기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바로 그 순간 리틀 울프는 그가 숨어 있는 숲을 향해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보다 더 반가운 소리를 그는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인 추장 오토가 이끄는 인디안들의 소리였다. 그들이 그를 구하러 온 것이다.

새끼들을 보호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던지 꿈은 분노를 풀기 시작했다. 꿈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자 새끼들을 끌고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부락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구나”하며 추장 오토는 부락으로 향하며 아들에게 말했다. “그레이 울프야, 그렇게 한 것은 참 용감한 행동이었다.”

리틀 울프는 자랑스러웠다. 그의 아버지는 리틀 울프 대신에 그레이 울프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는 성인으로서 처음으로 큰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圖

영감의 메시지

가족— 하나님이 주신 축복

렉스 디 피니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단합시키고, 승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멜기세덱 의식을 집행할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교성 84:2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갖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가장의 책임을 집니다. 그의 의로운 지도력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이 그의 가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이 성스러운 의무와 직분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협조자로서 가정에 자녀를 두고 가정이 번성하는 창조의 기쁨을 맛봅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인 자매는 가족과 남편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며, 가장으로서 거룩한 책임을 이행하는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휴 비 브라운 장로는 교회의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를 향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을 돌보는 일보다 더 훌륭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인쇄, 관용, 오래 참음, 기타 여성이 지닐 수 있는 특별한 미덕이 필요합니다.” (휴 비 브라운, 여성의 성스러운 사명, 상호부조회지, 1965년 12월, 887페이지)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말과 모범을 통해서 자녀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는 성스러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영원한 관계를 지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룩한 축복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훌륭한 신앙

밖에는 심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통나무 집안에는 낮에 집에 왔던 사람에게 밀가루를 준 이유를 설명하는 아버지의 음성만이 조용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전염병은 작은 마을을 휩쓸었으며, 밀가루와 물을 섞어 반죽한 것이 유일한 약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모두 이상한 겨울의 전염병을 앓지 않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고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의 농사가 흉작이었지만 그는 필모어를 지나 서부로 떠나는 여행가나 이웃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마차와 그들이 가진 밀가루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밀가루를 절약하세요. 우리아이들 먹이기에 부족해요”

아버지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사람이 대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아내를 위해 밀가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컵에 밀가루를 담아 주시면서 “훌륭한 신앙을 간직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 하셨을 때 그 이웃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감사의 표정을 막내 아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또 대문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젊은 사람이 허겁지겁 들어 왔습니다. “카링 형제님 애기가 죽어 가고 있어요 밀가루라도 좀 먹여 보고 싶군요” 하며 젊은 아버지가 간청을 하였을 때 가족들은 모두 이번에도 아버지가 거절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 젊은 가정이 밀가루를 얻어 가지고 집을 떠난 후에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어머니를 안으시고 가족이 함께 기도를 드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것처럼 추운 12월에도 건강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가족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을 때 작은 통나무 집안에는 평안과 희망이 찾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과 이웃 사람들이 음식을 들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밀가루를 얻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를 긁어 모아 죽을 끓이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죽을 끓이고도 약간 남은 정도로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죽을 먹고 있을 때 다시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선 사람은 마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다니다 아버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밀가루 20 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밀가루와 마차를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가족 기도

크리스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큰 언니를 도우면서 가끔 비가 내리는 창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비가 걱정이 돼서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이 나서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동생을 데리고 간 어머니의 소식을 아버지가 가져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오셨을 때는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을 먹기전에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식사를 축복하고 가족의 건강을 비는 기도를 드리자고 제의하셨습니다.

밖에서는 점점 세차게 폭풍 쏟아졌습니다. 접시를 닦고 있을 때 아버지의 환자에게서 전화가

피터의 노래

피터는 이상한듯 병실을 살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잠을 자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간호원 아줌마가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음 날 아침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병원은 컷으나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피터가 입원한 방은 성인 병실 끝에 붙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피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침대 시트를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고 무섭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에게는 주일 날 친구와 함께 즐겨 부르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피터는 항상 이 노래를 좋아했으나 오늘은 그에게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으나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문 옆을 지나가던 간호원 아줌마가 방 안에서 들리는 맑고 깨끗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피터의 감미로운 노래를 들었습니다. 피터의 감미로운 노래는 성인 환자의 병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부르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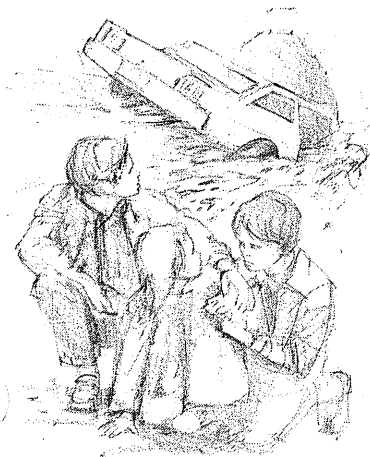


를 들던 환자들은 확신과 위안을 얻었으며 그들의 볼은 눈물로 적셔졌습니다.

피터는 노래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고 곧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동안 그가 드린 기도가 그에게 위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는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왔습니다. 그 환자는 이가 아파서 급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크리스타는 아버지를 따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차를 타고 폭우를 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료를 마치고 병원



을 떠날 때까지도 비는 계속해서 세차게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돌려 고속도로 입구로 들어서려고 할 때 도로변 산등성이에 있던 사람이 요란스럽게 호르라기를 불어 위험을 알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밀려 내리는 홍수가 차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열고 크리스타를 밖으로 밀어 뚝에 있는 두 소년이 크리스타를 안전하게 당길 수 있게 하였으나 자신은 차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차 밖으로 내던져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컴컴하고 긴 지하로 통한 하수구로 빨려 들어 가려는 순간에 들은 마지막 소리는 잡고 있는 소년들을 뿌리치면서 “아빠”를 부르는 크리스타의 음성뿐이

었습니다. 하수구에 빠져 숨을 헐떡거리는 순간 강한 팔이 그를 잡아 올렸고 그는 개천으로 맴돌고 빠지는 홍수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숨가쁜 위험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크리스타는 다시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에 안전하게 안긴 크리스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정말 특별히 드린 기도에 너무도 빨리 응답을 받았지?”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타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곳의 소금바다

낸시 엠 암스트롱 글
딕크 브라운 그림

해 갈릴리해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담수인 이 호수는 물고기도 많으며 가장 넓은 곳의 길이가 22킬로나 되고 폭은 13킬로에 이릅니다. 이 강 근처의 산에서 예수는 빵과 물고기에 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호수에 일어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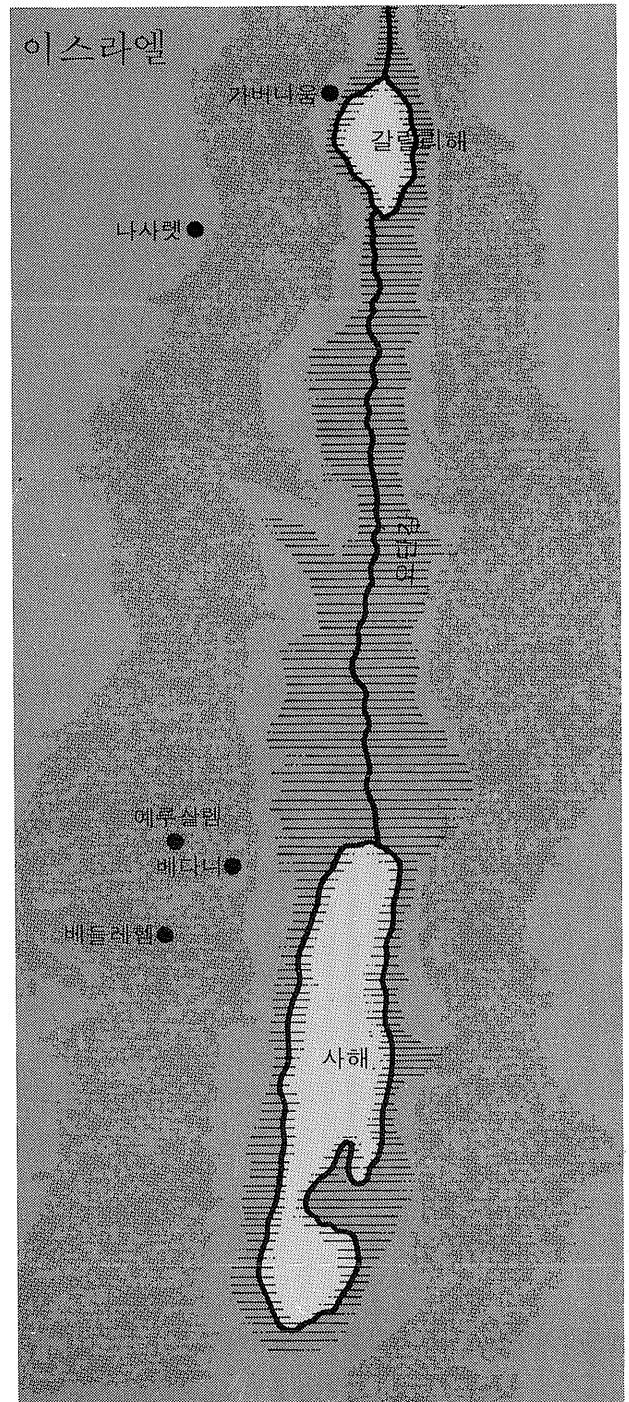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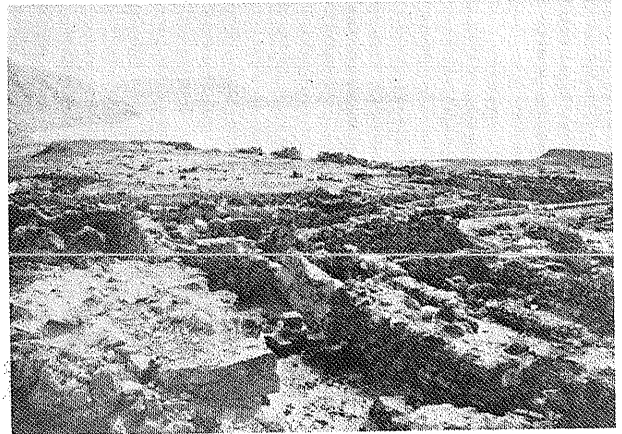
요단강이 갈릴리해로부터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어귀까지는 104킬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은 224킬로를 꾸불꾸불 흘러 가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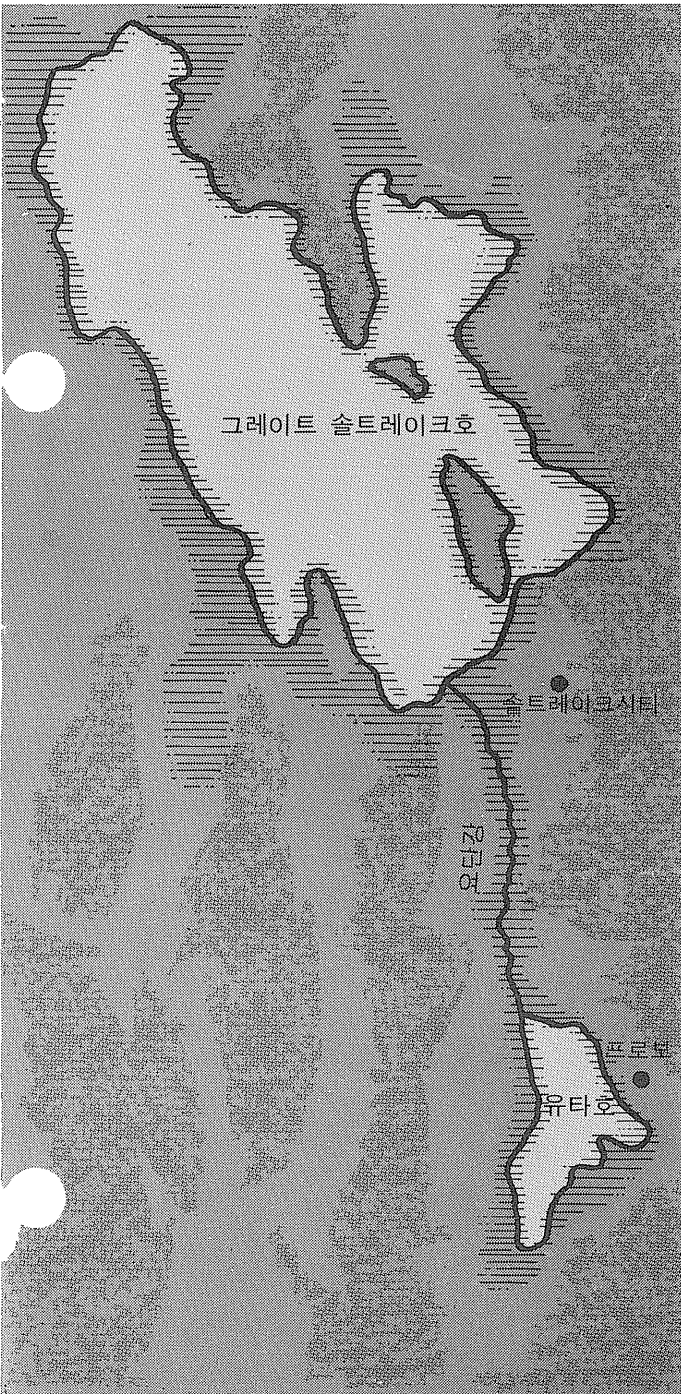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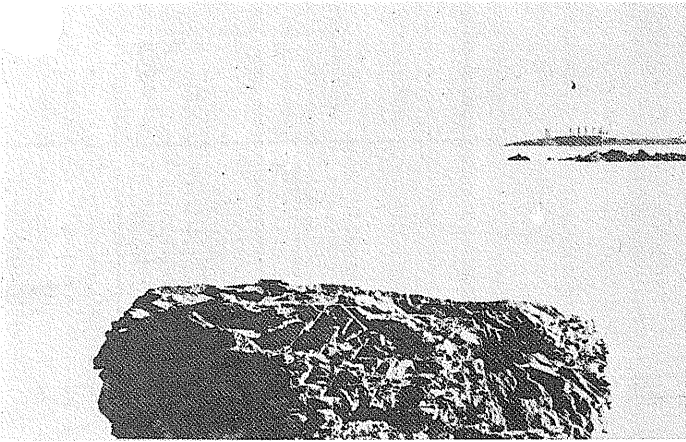
예수가 태어난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은 사해에서 서쪽으로 22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호수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아 바다물보다 염분의 농도가 여섯 배가 더 짙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근처에는 성지에 있는 호수와 비슷한 호수가 있습니다. 담수인 유타 호수는 산으로 둘러 싸인 계곡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길이는 40킬로이며 폭은 갈릴리해와 같은 13킬로입니다. 갈릴리해와 같이 물고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지에 있는 강 이름을 따서 붙인 유타주 요단강은 유타호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호까지 48킬로를 흘러갑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호는 사해보다 크며,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길이는 120킬로이며 폭은 80킬로입니다. 사해의 길이는 77킬로이며 폭은 14킬로가 약간 더 됩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호에는 요단강 이외에도 여기 저기서 담수 강물이 흘러 들어오나 바다물보다는 4 내지 7배나 더 많은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분의 정도는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매년 이십만 톤의 소금이 여기서 나옵니다. 소금물을 염전으로 끌어 올려 태양 열로 수분을 증발시키고 소금을 굽어 정화시킵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호에 있는 몇 개의 섬은 바다 갈매기, 오리, 거위, 페리칸의 서식처가 됩니다. 매년 봄만 되면 바다 갈매기가 한 섬에 날아 들어 집을 짓기 때문에 새섬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바다 갈매기는 유타주 지정 새이며, 법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물몬 개척자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기념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개척자들이 가꾼 첫 곡식에 메뚜기 떼가 날아왔을 때 그레이트 솔트레이크호에서 바다 갈매기가 몰려 들어 메뚜기떼를 잡아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지나 유타주나 모두 담수의 호수와 소금 호수와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모두 주님의 충실한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㉞



찾아봅시다



이 그림에서 암소, 돼지, 당나귀, 오리 각각 한마리와 양 두마리를 찾아보세요?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 둔다.

질의 응답

“아론 신권 정원회의 회장단은 어떤 기능을 발휘합니까?”



신문 최근에 와드 금식 간증회에서 한 집사 정원회 회장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동료 정원회 회원이 앉아 있는 앞 열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와드 내의 모든 집사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참으로 나의 정원회에 속해 나의 책임 아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군요.”

이 젊은 정원회 회장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감독을 통하여 다른 집사들을 이끌도록 부름을 받아 주님을 대표하게 되었고, 집사들이 주님의 뜻을 정원회에서 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구세주가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집사의 직분을 관리하는 회장의 의무는 십 이 명의 집사를 통할하며 이들과 더불어 회의록 열며 저들에게 저회 직분의 의무를 가르치며 성약에 따라 서로 덕을 품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7 : 85)

이 계시 속에는 모든 정원회 회장이 자기가 맡은 직분의 책임을 모임에 적용하고 이해시켜야 할 세 가지의 주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관리한다. 이것은 감독하고 지도하며 인도하고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정원회 회장은 그의 정원회를 이끌 열쇠를 쥐고 있어 회원이 그들의 신권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원회 고문인 동시에 그 정원회를 인도하기 위해 계시를 받을 자격도 있으며, 그가 그러한 열쇠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원회는 회장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 함께 앉아 회의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원회 회장은 각 정원회 회원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관심을 표명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다정해야 하고, 개개인과 그룹의 요구에 민감해야 하며 정원회 회원이 성실하도록 지도하거나 권고하거나 격려해야 하며, 순결하게 생활하고 신권을 존중하게 해야 합니다. 정원회 회장은 주님께서 정원회 회원을 자기에게 맡겼으며, 주님께서 회원들이 지시와 인도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회장이 회원들과 함께 앉아 상의”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3. 의무를 가르친다. 이것은 정원회 회원과 동년배인 회장이 갖는 가장 중요한 책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가 정원회 회장으로부터 신권의 의무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고문과 같은 사람이 이러한 의무에 관해 가르친다고 해서 정원회 회장의 가르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와 똑같은 가르침을 교사나 제사 정원회 회장과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은 주의할 만하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 권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모든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은 와드 아론 신권 회장이며 동시에 제사 정원회 회장인 감독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제사 정원회는 특별한 지도자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감독이 그 정원회의 회장이므로 제사가 정원회 모임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사는 모임을 사회할 수는 있으나 제사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는 감독에게만 있습니다. 감독은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제사 정원회를 이끄는 자신을 도울 제사 그룹 지도자를 선임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청년이 와드의 청년 프로그램을 맡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

을 하며, 감독의 청소년 위원회의 의장으로도 일하고 아론 신권 상향회의 활동 프로그램을 이끌게 됩니다.

정원회 회장은 자기를 도울 보좌를 갖게 됩니다. 현명한 회장이 라면 그의 보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그들과 함께 상의하고, 회장단으로서 맡은 몫을 이행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는 보좌들과 정구적으로 만나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그들의 업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보좌들에게 차레로 정원회 모임을 사회하도록 하며, 정원회 회원을 함께 데리고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회장단은 한 팀으로서 일하게 되고 정원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단합된 지도력을 보여야 합니다. 정원회 회장은 보좌들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보좌들에게는 회장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은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해 오는 큰 축복과 앞으로 여러분에게 올 더 큰 책임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기심을 가지고는 지도자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임을 이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느 헌신적인 정원회 회장은 그의 기도마져 바뀌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원회 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충분히 기울인다면 성인 지도자나 보좌나 개인적인 경전 연구나 기타 양서를 통해서나, 금식기도로써 도움을 간구하여 맡은 바 부름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이끌어야 할 사람을 거느리고 있고 동시에 자기의 책임에 관해 보고하게 될 지도자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훌륭한 정원회 지도자는 정원회 회원이 자기를 따를 것을 기대하듯 그의 지도자를 지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는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하여 그들의 지도력을 개발시키고 참여의 축복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주님에 의해서 그의 종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도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할 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해 주며, 간증을 강화시켜 주고, 약점을 극복하게 해 주며, 그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녔던 니파이의 모범을 따라 어려운 일을 성취하도록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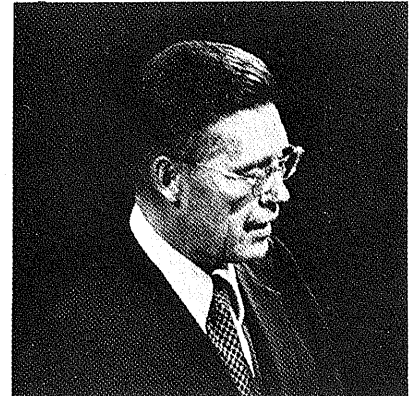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
대답 : 백크맨 형제 로버트 백크맨 아론 신권 상향회 청년 담당 회장

1974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모임

하나님이 예임하신 예언자와 백성들

주님께서서는 오늘날 그의 백성을
이끌 사람을 부르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브르스 알 맥콩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받아 성임되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사도는 주님의 영의 증거하심을 받아 킴블 대관장이 이제 선두에 나와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았음을 압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종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내가 그에게 맡긴 모든 일을 “충실하고 참되게”(교성 124:13) 행하였느니라. 이제 그가 너희 가운데서 할 일을 모두 마쳤느니라. 나는 그를 나의 영원한 포도원에서 다른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 부르노

이제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요, 주님의 백성을 이끄는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며, 우리 앞에 놓인 미래

를 위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도록 예임되었다는 사실을 믿읍니다.

나는 그가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해서 이 직분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라. 나 주는 나의 종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을 불러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는 그 큰 날에 대비하여 준비시키는 사업을 계속하게 하노라. 나는 내 종 요셉 스미스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어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다.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심이니, 나는 저에게 영감을 주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한 권세로 시온의 대업을 추진시키리니, 저의 근면을 내가 알며 저의 기도를 들었음이라.”(교성 21 : 4-5, 7)

이미 세상을 떠난 예언자를 믿거나 그들이 자기 다른 상황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준 권고를 믿거나 따르기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에 그의 백성을 두신 이래로 어느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당면하는 보다 큰 시험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시대를 위해 주신 살아계신 예언자의 권고와 지시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며 그의 값진 소유물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몹시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따르겠다고 한 분의 자녀들이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그의 길을 따르라.
그리고 아버지의 무서운 분노를 피하라.

“우리는 선견자 모세와 그의 여러 고대 예언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금은 보화보다 귀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모습을 돌리려거든 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게 할 때에 너희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느니라.

이는 그가 내가 지상에 와 일을 하리라는 것을 알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걸었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이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예언자나 교사나 선견자의 손에

내가 권능의 열쇠를 주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브르스 알 맥콩키—

따라서 나는 오늘날 교회와 지상의 하나님 왕국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은 고대의 예언자나 사도와 같은 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지상의 왕국을 이끌고 지도하도록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롭니 세 분과 함께 거의 매일 모여 상의를 하는 우리는 그들의 결정으로 보여 주는 지혜와 판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초대 교회의 첫

대관장단을 구성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그들도 의로운 전도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이끄는 이들 형제들의 부름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계획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셨으며 그의 영원한 복음이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되어 요셉 스미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여러 경륜의 시대의 인간에게 나타내져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복음 사업을 펴고 그의 메시지를 각 시대의 온 세상에 전할 예언자와 사도들을 택하십니다. 그분은 그의 종을 선택하시고 예임하시며, 지상에 보내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지상에서 할 일을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지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예임된 위치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예임된 자로서 준비되어 부름을 받은 사람의 좋은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신앙이 독실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삭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적인 자질을 물려받은 야곱과 같이 그도 현재와 같은 대관장으로서의 부름을 위해 준비하는데 바탕이 된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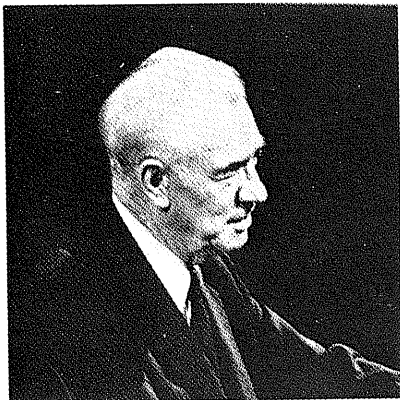
평범하게 태어났다가 평범하게 준비를 쌓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앙이 독실했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에게 빛과 진리와 구원을 전하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이 생애에서만 준비를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1974년 4월 9일 토요일 오후 모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킴블 대관장은 오늘날 주님의
대변자입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식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
리스도 교회의 신임 대관장
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순
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사 144년을 통해 열 두 번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태
버내클에서 가진 성회에서 스펜서 더
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교회의 대관장

으로, 또한 주님의 예언자요 선견자
요 계시자로 성도들의 지지를 받았읍
니다.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읍니다. 성
령의 확인이 그곳에 충만하였습니다.
태버내클에 있던 사람은 누구나 거룩
한 영이 임재해 있음을 느꼈읍니다.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
는 사람에게도 그 느낌이 전달되었읍
니다. 모세의 시대처럼 “모든 백성은
아멘” (신 27 참조)을 드높이 외쳤읍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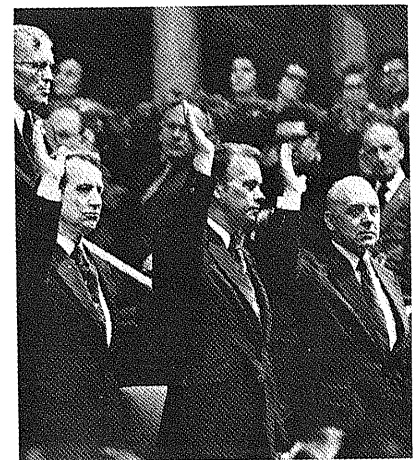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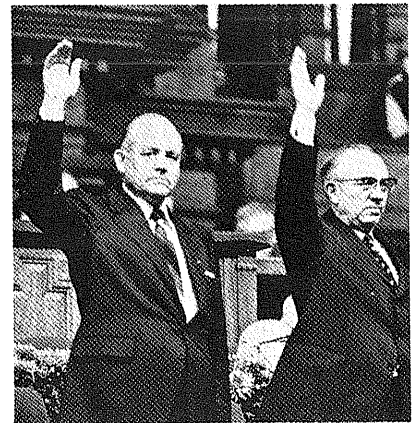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택함을 받았
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를 수년 동
안 이끌어 오고, 해롤드 비 리 대관
장의 서거 이후 오늘날까지 잠정적으
로 대관장의 일을 맡아 오던 킴블 대관
장이 전 교회 회원들로부터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대변자로 지지되
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
높은 직분을 받아 들였습니다. 겸손하
고 거만하지 않는 성품이지만 놀라운
힘과 창의력과 통찰력을 지닌 분이며,
매사를 실천에 옮기는 실천가입니다.

사도로 봉사한 30년 동안 그가 바
친 놀라운 힘과, 끊임없는 열의와,
희생과, 하나님 왕국 건설을 위해 자
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의 뜻은
온 교회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무한히 큰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성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의 견강도
그가 이처럼 위대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미 받았음을 입증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놀라운 힘을
행사함에 있어 그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고,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힘과 열의 이외에도 그의 친절, 사랑, 겸손, 타인과 그들의 문제에 대한 이해심,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고,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 주었으며,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으며, 그들을 주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언제나 사랑과 친절과 부드럽고도 동정적인 손길로 그 안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조금도 자신의 의무를 멀리 하지 않고 신앙과 기도와 고귀한 성품에 힘입어 문제에 접근해 갔습니다. 그 결과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것도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인간으로서의 제약을 자각하면서도 그는 이것이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겸손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니파이의 말을 굳게 믿은 분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 : 7) 이것이 그의 신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입니다.

주님의 프로그램은 전과 다름없이 전진할 것인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통하여 일을 하시며 지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또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회원이 만장일치로 새 대관장을 지지함으로써 그들은 그를 따르겠다는 막중한 책임을 다짐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지지는 하나의 성약으로, 주님과 수많은 태버내클 참석자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지켜 본 증인 앞에서 거수로서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대관장을 지지할 때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오늘날 주님의 대변자이시며, 이러한 사실은 뜻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절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지도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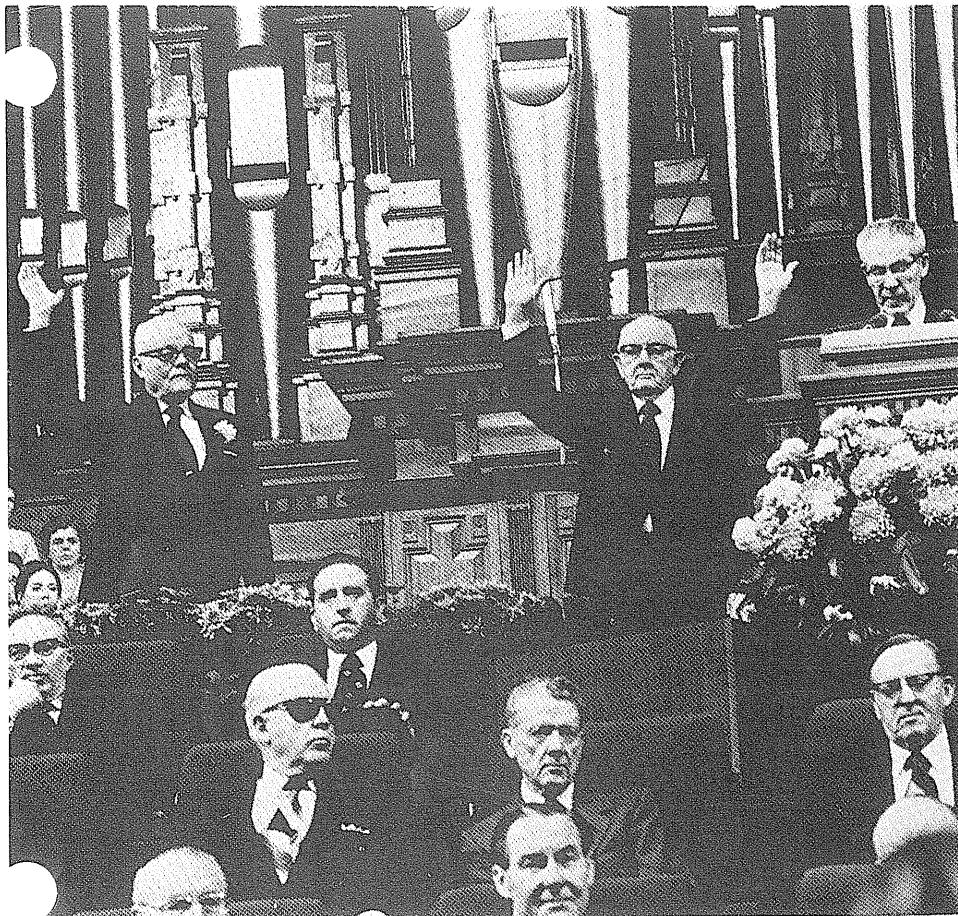
“...성신으로 감동되는 대로 말하여야 함도 저들에게 주는 하나의 예니라”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성 68 : 3-4)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새로운 대관장을 지지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성스러운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계시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



라”(교성 84 : 44)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예언자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

이것은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이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144년 전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의 지도자가 그의 대변자가 되지 스스로 지명한 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원리를 회복하시면서 이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1830년 4월 6일 주님께서 새로이 지명된 교회의 대관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의 대변자가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은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교리와 성약 21 : 4-5)

그리고 우리가 이를 따를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홀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리와 성약 21 : 6)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성구는 우리가 오늘의 지지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위대한 원리와 교훈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한 시대에 한 사람의 머리밖에 있을 수 없으며, 그 사람은 오늘 킴볼 대관장님처럼 선택되고 지지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그러한 직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히 3 : 4 참조)

주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행할 사람을 은밀히 성임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공개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교성 42 : 11)

다시 주님께서 “모든 일은...교회 회원의 만장일치로 수행되어야 하나니”(교성 26 : 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회원에게 알리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또 “본 교회에서 정식으로 조직된 지부가 있는 곳에서는 교회 회원의 거수 지지 없이는 어떠한 직책에도 성임될 자가 없느니라”(교성 20 : 65)

“나는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 모든 직분을 모두 채우며 내가 이름을 든 자들을 나의 일반 총회에서 승인하거나 부인해야 하느니라”(교성 124 : 144)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예찬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지도자를 배격하고, 교회에는 그 머리에 하나의 분명한 지지자가 있을 뿐이며, 그가 계시에 의해 선택되어 교회의 일반 총회에서 회원



성도의 빛 1974년11월호

의 지지를 받은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라는 사실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지지를 받은 분이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입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오늘 우리가 행한 바 있는 것과 같은 대관장의 지지 절차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시온에 제정하신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백성들의 소리입니다.”(복음의 왕국, 테저렛 출판사 1943년, 143페이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 대변자를 한 사람만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계시를 전하고자 할 때에나 새로운 교리를 밝히고 징계를 주고자 할 때는 그가 그 일을 부르고 지명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일을 행하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테저렛 출판사, 1925년 212페이지) 바로 그분이 교회의 대관장님이십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맡은 바 의무를 다 한다고 여기실 때 여러분이 실족하도록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2페이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원하지 않을 때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에 부름을 받을 것인가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치호머 더햄 편, 복음 표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9년 68페이지)

그렇다면 킴블 대관장님은 어떤 권능을 지니고 계실까요? 그는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천사가 전해 준 열쇠와 권능을 모두 받아 지니고 계십니다. 그는 권능을 지닌 자의 안수로서 이러한 모든 권능을 받았습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거니와 그는 이미 그러한 권능을 소유하였고 그것을 킴블 대관장님에게 줄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사람의 안수로 모든 권능을 물려 받았습니다.

교회의 역대 대관장은 모두 이 모든 열쇠와 권능을 지녔었습니다. 어떠한 대관장도 이 열쇠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그러한 것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러한 열쇠와 권능을 지닌 채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사업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업은 그러한 열쇠나 권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계속해서 지녀야 할 필요가 있는 권능입니다.

만일 요셉이 죽은 자를 구원하는 열쇠를 가지고 죽었다면 우리는 신천 사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권능 없이 모든 민족과 방언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요셉이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집합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개척자 선조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여 산꼭대기까지 올라 왔으며, 이곳에 교회의 본부를 세웠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전세계적으로 주님의 백성의 집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합의 열쇠를 지녔던 모세가 이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넘겨 주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없이 세계의 도처에

교회의 스테이크가 조직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천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전해 준 권능이 교회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남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능은 언제나 교회의 대관장이며 예언자요 선견자이며 계시자인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사업을 지지하시고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모스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참진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하나님의 성도에게 권고하노니 모두 맡은 바 부름을 영화롭고 성스럽게 이행하도록 의연히 나서며, 부름받은 직분과 맺은 성약을 온전히 지켜 증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권능과 열쇠와 신권을 지지하십시오.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 여러분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매티아스 에프 카우리 편, 윌포드 우드럽,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출판사, 1909년, 657페이지)

나는 구속주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은 내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진실임을 내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살아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의 교회입니다. 구세주인 예수께서 이 사업을 지도하십니다. 킴블 대관장은 그의 예언자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내가 지닌 성스러운 신권의 권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㉞

1974년 4월 5일 금요일 오후 모임

공의와 자비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십이사도 보조



생도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공의와 자비의 원리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내 아들이여 여호와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잠 3 : 11-12)

주님께서서는 교회의 초창기에 몇몇

형제가 맡은 바 소임을 태만히 하고 있어 꾸짖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나는 나의 종 프레, 데릭 지 윌리암스에게 이르노니, 너는 여전히 이 정죄받는 일을 계속하고 있느니라.

“너는 계명에 따라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나니,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지배하고 있도다...

“진실로 나는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에게 이르노니, 어떠한 일에 있어서 너는 저의 자녀에 관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먼저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나의 종 뉴웰 케이 휘트니도 책망받을 필요가 있으니, 가정에 질서를 세워 좀 더 근면하고 가정에 마음을 쓰게 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 처소에서 옮겨 우리라.”(교성 40-42, 44, 50)

예언자 요셉이 마지 못해 말틴 해리스에게 물몬경의 원고를 가져 가게 허락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없나니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시며, 바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고치시지도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곧고 그 나아가시는 길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인간의 일이니라.

“이는 아무리 많은 계시를 받으며 또 능력이 있는 일을 많이 행할 권능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며 자신의 의지와 속된 욕망을 좇아 행하면 반드시 타락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양갈음을 자초하리라.

“보라, 너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며 그 말씀을 경시할지라도,

“너는 충실했어야 하였으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팔을 펴사 너를 받들어 원수의 불화살을 모두 막아 주셨을 것이요, 번민할 때에 너와 함께 해주셨으리라.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준 계명을 어기어 저지른 일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아직도 선택될 자니, 그 일에 부름을 받느니라”(교성 3 : 1-4, 7-8, 10)

용서의 기본되는 개념 중 하나는 용서가 있기 전에 공의에 만족하고 진지하게 회개하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되나 자비를 나타내 보일 때는 반드시 꾸짖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교회 정사, 5권 24페이지)

킴블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회개를 하기 보다는 주님의 자비에만 의지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주님께서는 자비로써 공의를 너무 모가 나지 않게 조정하시나 결코 매치하시지는 않습니다. 자비가 결코 공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나 또한 공의로우십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 용서가 낳은 기적, 북크레프트사, 1969년, 358페이지)

공의의 영원한 일면을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도의 구원과 축복을 위한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이를 어길 때 벌이 따르게 됩니다. 예언자 엘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간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죄짓지 않고 회개할 수 있겠느냐? 율법이 없다면 어찌 죄를 짓겠느냐? 형벌이 없는 율법이 있을 수 있느냐?”(엘 42:17)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이를 이루려 왔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분은 공의의 강제성이 너무 강한 방향으로만 발휘되지 않도록 하고 범법자에게 그가 회개하여 용서와 희망과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율법과 함께 원칙을 함께 가지고 오셨습니다.”(대회 보고, 1954년 4월, 11페이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구원과 존경을 안겨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다

스리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감독은 보통 판사로 지명이 되었으며 그는 그의 보좌와 함께 그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법 행위를 재판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사건은 스테이크 부장의 지시 아래 고등 평의회 재판에 부쳐지게 됩니다. 이들 심판관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사건들을 자비와 공의에 입각해서 다루게 됩니다.

나는 신권 지도자가 결정해야 하고, 범법자가 이해해야 하는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언제부터 회개하였다고 보아야 할까? 언제 공의의 요구가 충족될까? 언제부터 자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답으로는 엘마가 한 다음과 같은 말보다 더 분명한 말이 없다고 봅니다.

“보라 공의는 공의의 뜻을 역사하며 자비는 자비에 합당한 자를 구하리니, 진실로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비가 공의를 도적질하리라 생각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렇지 아니하다. 조금도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게 될 것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지기를 그치셨으리라”(엘마서 42:24-25)

심각한 범법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처럼 간결하게 설명해 준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이는 교회를 깨끗이 하고 그 범법자를 완전히 회개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리 대판장님은 1972년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 때 범법자로부터 고개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되며, 그렇게 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도 같아서 때로는 야단을 치고..., 벌을 주어야 하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리입니다. 이같은 행동은 다정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징계 조치가 소홀해서 주님의 영을 완전히 잃게 되고 사탄의 못매를 맞도록 넘겨질 때까지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보았습니다.”(신권 임원회, 1972년 3월 1일 12페이지)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의무를 잊고 범법자를 너그럽게 간과하는 일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며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어떤 이로움을 안겨 주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심판자는 죄인을 회개와 용서의 길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대회 보고, 1954년 4월, 11페이지)

주님의 율법을 어긴 많은 사람이 교회 재판에 소환이 되고 그들의 범법에 대해 적당한 조치가 내려지면 부당하게 다루어졌다고 느낍니다. 교회를 돌보며 심각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많은 신권 지도자가 범법자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게끔 재판을 열고 조치를 취해 주는 일에 게으른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친절하게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실은 가장 불친절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리 대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거짓 자비를 베풀어 죄악에서 온전히 손을 끊고 회개할 수 있는 공의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가정을 강화함, 1973년 5페이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용서가 올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언제 인정될까요?

잡다는 듯이 “물론 있지요”라고 대답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내자가 어느 방에서 설명한 영원을 위한 결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군요.” 우리는 문 옆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결혼 반지를 낀 것으로 보아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았고, 남편의 손을 꼭잡고 있는 모습이 서로의 사랑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들어 보니 두 분께서는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신 것 같군요”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네 3개월이 지났어요”하고 그녀가 대답하였습니다.

“두 분께서는 목사님이 성혼을 선언하셨을 때 결별을 아울러 선포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하며 그녀는 성급하게 되물었습니다.

“삶이 영원하다고 믿으시지요?”

“물론이지요”하며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없는 영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영원한 행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야 없겠죠”하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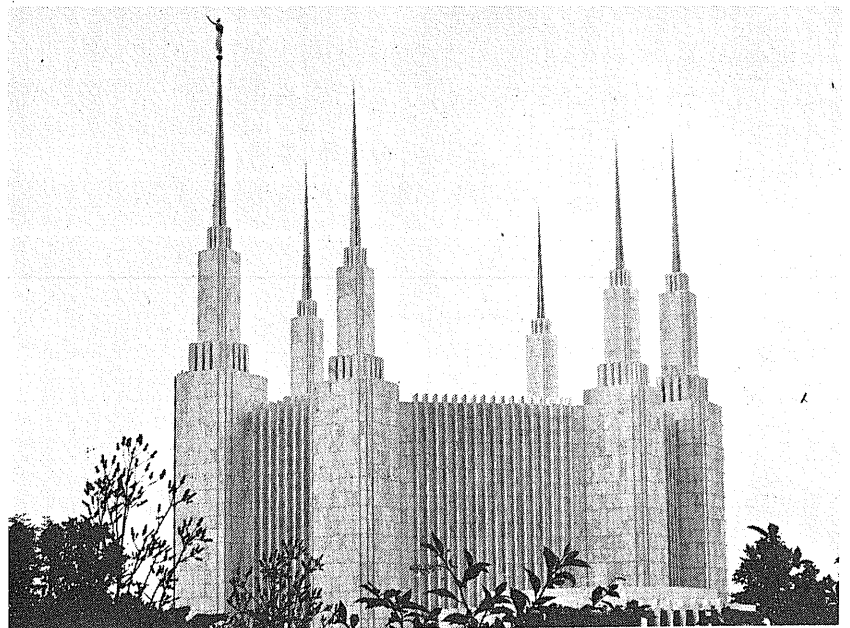
“그런데 목사님은 결혼을 선포하실 때 무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축복을 기원하였지만 죽음을 넘어서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두 분께서 목사님에게 물어 보시더라도 그는 결혼 관계나 가족 관계가 죽음을 초월해서까지도 지속된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인간 관계인 결혼과 가족 관계의 영속성을 합당한 상황 하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구세주와 그의 제자들이 뜻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

는 권세인 성 신권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권능이 고대에 이것을 지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서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나는 계속해서 다음 토요일 신전 헌납이 있는 후부터는 바로 그 성 신권의 열쇠가 결혼 의식을 받기 위해 성전에 오는 남녀를 위해 행사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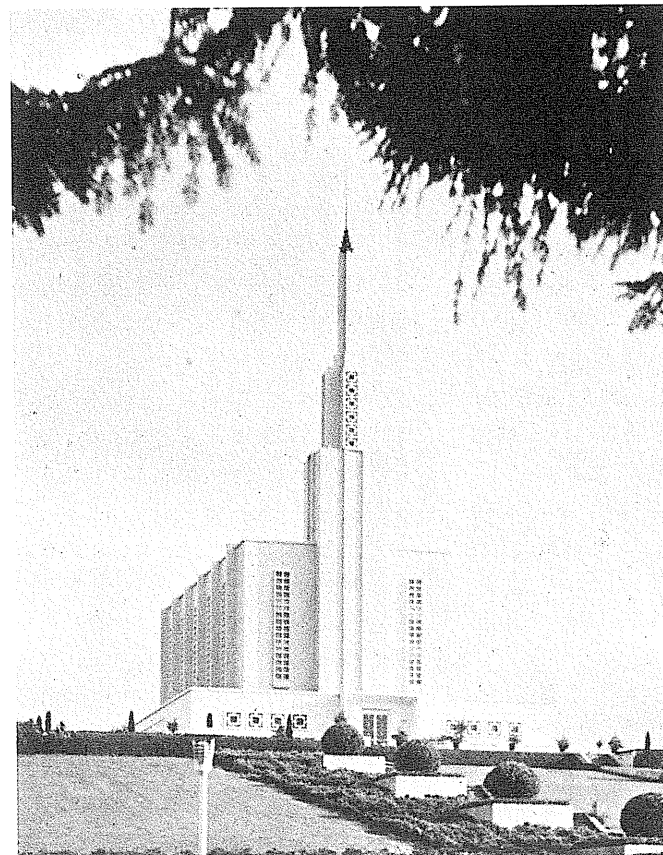
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 : 13-19)

“그 놀라운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에게 이 생과 영원까지 미치

다. 그들은 죽음으로도 갈라 놓을 수 없고 시간으로도 떼어 놓을 수 없는 상태로 영원히 결합됩니다.

이것이 내가 영국에서 만난 젊은 부부에게 전한 간증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세계 도처에 있는 젊은이에게 전하는 나의 간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현세와 영원으로 행복해질길 바라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식간의 부자 관계에서보다 더 뜻깊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인간 관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나는 사경을 헤메는 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느 어머니를 병상 옆에서 지켜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섯 살난 어린 아이와 네 명의 자녀와 남편을 남겨둔 채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꿰뚫을 듯한 슬픔이 앞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메이는 듯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아름다운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었으니, 이는 이들이 성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주님의 전당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의식으로 모두가 인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영원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권능으로 인봉되는 성약입니다.

그러한 권능을 국가가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는 동안만 지속되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능에 죽음을 초월한 전능하신 분의 은사로 주어진 권능이 더해진다면 그러한 관계는 당사자가 약속을 이행받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간다면 이 생을 초월해서까지도 지속될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다음과 같은 가사에 맞추어서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장미와 같아

활짝 피었다가는

여름이 가듯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춤곡의 가사에 불과하나, 수세기 동안 사랑을 알게 되고 오늘 의 유대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남녀가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으며, 사랑과 결혼이 주님께서 밝혀 주신 계획 아래서는 여름이 지난 후에 시드는 장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값진 이 은사는 자기 수양, 미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단계를 거쳐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진리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우려날 때는 가능합니다.

브리감 영 대판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의 참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의롭게 결혼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영국까지도 기꺼이 가자고 할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그 축복을 바라는 여성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는 결혼을 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5페이지)

많은 사람이 신전 의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것처럼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하와이 신전까지 여행하기 위해서 식사까지도 줄여 가며 여비를 준비한 일본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에서 11,000킬로나 떨어진 런던 신전에 오기 위해 생활 필수품까지 절약해 여비를 마련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두 눈은 반짝거렸으며,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들이 치룬 대가 이상의 값진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나는 뉴우질랜드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온 한 성인 남자가 들려 준 간증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종하기 전에 결혼을 한 사람으로 교회에 들어 온 다음 대륙을 넘어 뉴우질랜드의 타스만해를 건너 오클랜드에 내려, 아름다운 와이카타 계곡에 있는 신전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간증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올 만큼 여유는 없었습니다. 재산이라곤 낡은 자동차와 가구와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의 얼굴을 보고는 다시 ‘가지 않을 수 없지,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다시 차나 가구나 접시를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다면 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도 불쌍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에 얽매어 근시안적으로 살고 있는가! 죽음과 이별이 있듯이 내일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결혼하고 생활하면 우리의 관계는 죽음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큰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들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시간과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는 권세가 역사되지 않는 한 하나의 낭만적인 바람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오래 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이 연단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지 혼란의 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의 전당의 질서 밖에서는 영원히 완전해질 수 있는 결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흉내는 낼 수 있으나 그것이 거룩한 권능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복음 교리, 1971-72년 벨기세 맥 신권반 교재 2권 1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꾸민 이야기이지만 그 원리만은 사실에서 따온 것입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고 장미가 만발할 때 사랑이 결실을 보게 된 두 남녀

가 있었습니다. 자니라는 남자가 메리라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메리난 메리를 사랑해, 내 아내가 되어 주고, 자녀를 낳아 재미있게 살아 봅시다. 그렇지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건 원치 않아. 좀 살다가는 이별을 하는 거야” 달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지켜 보던 그녀는 “자니 참으로 훌륭해요. 자니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요. 사랑해요. 정말로 저의 남편과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 주세요. 그렇지만 얼마 동안만 살다가 그 다음엔 작별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가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습니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서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데도 이들은 죽음으로 영원히 결별되는 관계를 택한 것입니다.

삶이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사랑과 가족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의 부부나 가족 관계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래서 사랑과 유대를 만끽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영원한 관계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권능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의 권세와 그의 신권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의 거룩한 전당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버리지 맙시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참여자가 되고, 그의 거룩한 신권의 성별의 권세가 여러분의 관계를 인봉하게 합시다.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축복을 기원하고, 이상의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㉔

음 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나는 함께 같은 일에 종사하는 나의 동료들 사랑합니다.

예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 37, 39)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웃으로부터 온 레몬

에 서서 모범으로 항상 나와 자녀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네 딸을 포함해서 다섯 딸과 그들의 남편되는 사람들도 모두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내가 이들에게 이처럼 영향을 미칠 때 그녀는 참으로 주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아내는 언제나 미소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처럼 훌륭한 동반자를 가진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

친절함이 열쇠임

잔인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이웃에 대해 불친절하고 인정이 없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할 수 있을까?

친절함이 깃들여 있지 않은 자비가 있을 수 있을까? 물론경은 하나님이 지니신 순수한 사랑이 참된 자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비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디 12 : 34)

절제와 인내가 친절이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

친절함이 없이 형제애나 자매애가 있을 수 있겠는가?

친절함이 없는 경건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 인내, 이해심이 없이 순수한 겸손이 있을 수 있나?

친절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실때 자비와 화평케 하는 것과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오른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쪽도 돌려 대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는 십리를 가고, 코우트나 옷도 벗어 주라고 가르치신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친절은 경건 다음으로 중요하다. 구세주께서 생활의 모범을 보이셨으며 그가 친절하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다.

크림 파이와 사라다는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렇게 음식을 주고 받으면서 나의 영원한 동반자인 아내는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녀의 소망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행동이 내심 깊이 흐르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아내는 나보다 높은 위치

다. 김볼 대관장님과 보좌님, 벤슨 사도님과 십이사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을 보조할 것입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함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예수께서 걸으신 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걸
어야 할 길을 보이셨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웃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자가 우리를 모두 지상의 속박에서 높은 하늘로 끌어 올려 주셨

습니다. 굳게 다짐한 마음으로 우리는 지지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진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어느 추운 날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랐던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께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에 모였습니다. 예언자로서 주시던 말씀과 강력한 지도력과 헌신적인 봉사를 보이신 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함을 누리게 되도록 소망을 가지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다음날 솔트레이크 신전의 성스러운 다락방에서 그의 후계자가 선택되었으며 지지되었고 성스러운 직분에 성별되었습니다. 일에 지칠 줄 모르고, 항상 겸손하며, 영감에 찬 간증을 지니고 있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님께서서는 리 대관장님이 결정하신 길을 계속 따르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 분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길을 따르라 그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며칠 전에 집에 배달된 여행 안내 책자를 무심코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현란한 색깔과 매혹적인 유희의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놀웨이의 협곡과 스위스의 알프스 관광 안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 기독교의 발생지인 성지 베들레헴에 초청하는 안내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책자의 마지막 구절에는 간단하나 강력한 힘을 지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실려 있었습니다. “와서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어 보십시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예언자인 리 대관장님과 킴블 대관장님이 주신 권고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라. 그의 발자취를 걸으라” 어느 시인이 쓴 짓기가 떠오릅니다.

나는 오늘 오랜 옛날
예수께서 거니셨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며
그가 아셨던
길을 배회하였습니다.

변하지 않은 작은 길목을
걸었습니다.
화평이 내리 깔렸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께서 거니셨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모습도 느껴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하는 길목에 서서
감미로운 추억에 빠져 보았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언덕은

부름에 대한 대답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보조



오랫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설교를 하며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섰으며,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증을 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킴블 대관장님을 통해 주신 이 부름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과거의 일을 꾸짖지 않고 더욱 잘 하라고 지지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준

사랑하는 아내 코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아들과 세 딸과 사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로서 나는 말은 일에서 성공을 거두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를 지지하여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용감한 예언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전” (약 1:27)을 끊임없이 실천하신 그와 킴블 자매님의 노력에 대해서 킴블 대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관장님의 위대성은 꾸밈없고 겸손하며, 가식이 없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아침보다는 우리가 생활의 지침인 확신을 얻게 되기를 진실로 바라십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의 사랑에 찬 가르침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돕게 되기를 바라는 태너 부대관장님과 롬니 부대관장님, 벤슨 사도님과 12사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이와 같은 위치에 오르도록 준비시킨 하나님의 목적을 생활을 통해 실천한 분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하나님도 놀라시지는 않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평 한 마디 없이 가족을 남겨둔 채, 쉴 사이 없이 여행을 하는 총관리 역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매주 비행기를 갈아 타고 여행을 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비행장만을 주로 다니면서 향수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물었다고 한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의 지혜 속에 담긴 윌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레몬튼, 옥덴, 네바다 지역에서 일할 때 나를 도왔던 교회 회원과 다정했던 십이사도 지역 대표, 특히 다른 나라에서 부름을 받고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교육 기구 산하 50개국에서 수고하고 계신 30만에 가까운 동료와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 대속의 상당한 부분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35개국을 다니면서 기꺼이 증거할 수 있었던 간증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렌즈를 통해 인간과 그들의 삶을 볼 때 그것은 영원하게 보입니다.

순종할 때 축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순종에 비해서 너무도 큰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도 관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해의 왕국의 표준은 인간의 지위가 아니라 봉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재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활용하였느냐가 표준이 됩니다. 나는 교회 회원이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끊임없는 기회를 향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압니다.

끝으로 나는 어느 현명한 사람의 글을 저의 간증으로 전해 드립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택하지 않았다면 그대신 택한 것이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렇게 택한 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왕국을 발전시켜 나가게 돕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회 칠한 무덤

부산교부장 한 인 상

구세주의 가르침과 뜻을 좇아 살고 또 살고자 하는 것을 그냥 “기독교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좀 미흡한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인류의 의로운 부활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영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부활과 승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마땅히 따라야 할 복음의 원칙과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자리에서는 잠깐, 거짓의 아버가 되고 회칠한 무덤이 되는 위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경계하신 적의 하나는 위선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라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이중적인 면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이 위선을 극복하고 주님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과연 어떻게 이 위선을 극복 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적인 일에서는 행위 이전의 동기나 결과 이전의 행위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푼이 부자의 백만금 보다도 귀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의 예도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열피인간의 눈에 더욱 합당한 기도처럼 보였는데 그의 기도는 제단에 가까운 것이었고 몹시도 초라한 모습의 머뭇거리던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위선을 사주하고 그로서 실족케 하는 그 핵은 무엇입니까?

위선을 유발시키는 것 중에 교만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그 이름을 날날이 밝히려려면 끝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하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 전체적인 성격을 띄우는 사항은 합당치 않은 동기로 일을 시작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동기가 순수하거나 합당치 않을 때 모든 것은 위선입니다. 비록 교회의 직분을 맡아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그 동기가 의식, 무의식간에 자기의 내세움이나 기타 다른 합당치 않은 것에 조금이라도 관여되어 있다면 위선인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극히 분명한 불법을 내세워 유혹하지 않습니다. 또 사탄은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다같이 이용하되 반드시 약점만으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미처 깨달지 못하는 사이에 위선의 회칠한 무덤을 스스로 짓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일곱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될때가 가깝습니다. 그 날 우리는 의로운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입니다. 일하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할 수 있도록 늘 살피고 거듭 살피야겠습니다.

